

목차 CONTENTS

01

2023 문화다양성

- 06 문화다양성이란
- 08 다름에서 존중, 그리고 공존으로의 여정

02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 16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 32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
- 42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단 '청소년 소수다'

03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다양성

- 56 문화다양성 활동지원 '조건없음'

공존의가치

04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성

- 78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05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다양성

- 92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 108 완주문화다양성 리뷰 '다양성N'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01

2023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다름에서 존중, 그리고 공존으로의 여정

2023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은 차이를 스스로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문화다양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문화다양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의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예술가마다 표현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함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지역사회 간의 차이, 나라 간의 차이나 문화권 간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화다양성을 위해서는!

▶ 첫째, 문화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문화다양성은 새로운 것,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 둘째, 다른 사람·다른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갖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단편적인 소통이나 교류가 아닌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 셋째,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행동해 보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낯설고 새로운 것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내 안의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은?

국적·인종·언어·지역·성별·세대·계층·장애 등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차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각각의 고유문화, 언어문화, 지역문화, 세대 문화, 소수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관점에서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가치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나가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주관기관 현황

권역	연번	주관기관	사업명	
강원권 (1)	1	태백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플랫폼 “시고르 문화5일장”	
	2	구로문화재단	지구인	
	3	금천문화재단	취향교류 프로젝트-만개의 문화레시피	
	4	남동문화재단	다양각색 : 우리가 사는 세상(우사세)	
	수도권 (7)	5	동작문화재단	동거동락
		6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마을-다양성洞!
		7	인천영상위원회	디아스포라영화제
		8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다양성연극영화제
영남권 (4)	9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가가 가가>	
	10	김해문화재단	김해다움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11	영주문화관광재단	2023 영주시 문화다양성 기초조사	
	12	울산문화재단	다 같이 모여 더 가치 있는 울산	
충청권 (4)	13	당진문화재단	다(多)모인(人)당진!	
	14	대전문화재단	2023 대전 문화다양성 기초실태조사 연구	
	15	세종시문화재단	문화는 복수다, 다양성은 힘이 세다	
	16	충남문화재단	다(多)잇슈(Issue)	
호남권 (6)	17	광주문화재단	채널 우리 누리	
	18	부안군문화재단	부안염부	
	19	완주문화재단	공존의 가치	
	20	익산문화관광재단	오색 찬란(五色 燦爛)익산으로	
	21	전북문화관광재단	다름을 즐기고 같음을 연결하는, 전북문화다양성	
	22	해남문화관광재단	문화다양성 다(多)함께 해-남	

다름에서 존중, 그리고 공존으로의 여정

2019-2022 완주문화다양성 사업



◆ 주요사업

- 완주문화다양성 발굴단 '소수다(少守多)'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완주문화다양성영화제-되어보는 영화제'
- 농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 '일단 페미니즘'
- 유학생 '레인보우 푸드'
- 완주 이주노동자·유학생 집담회
- 찾아가는 무지개다리사업·문화다양성 상영회
- 문화다양성 정책준비위원회 정책TFT·워크숍
- 호남권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 완주문화다양성 사례 기사 연재



◆ 주요사업

- 완주문화다양성 발굴단 '소수다(少守多)'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강연회-풀씨'
- 청년젠더문화프로그램 '일단 페미니즘'
- 청소년 문화다양성 랩 만들기 '랩소년 오색사이다'
-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연극 공연 제작 워크숍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실라우?'
- 농인과 청인의 문화교류프로그램 '나무의 언어'
- 완주문화다양성 사례 기사 연재
-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소수다툰(Toon)'
- 마을학교 강사 연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 완주문화다양성 정책TFT
- 호남권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교류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워크숍'



◆ 주요사업

- 완주문화다양성 발굴단 '소수다(少守多)& 청소년 소수다'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완주하기'
- 일단 페미니즘 '읽기를 넘어 하기'
- 찾아가는 다양성 영화 상영회 '무지개 극장'
- 건너 세대 소통 프로젝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제조해요'
- 농인과 청인의 문화예술 소통 프로그램 '나무의 언어 2'
- 완주문화다양성 정책TFT
- 호남권 무지개다리사업 교류 프로그램 '익산-완주 문화다양성 활동가 네트워크'



◆ 주요사업

- 완주문화다양성 발굴단 '소수다 & 청소년 소수다'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in 완주'
- 일단페미니즘 '젠더와 미디어 그리고 청소년, 젠더스쿨'
- 놀이로 만나는 문화다양성 '시니어 놀이활동가'
- 청소년 '너랑 나랑 영화제작 프로그램'
- 농인과 청인의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나무의 언어 3'
- 청년문화예술활동지원
-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교육
- 완주문화다양성 정책TFT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공존의 가치'

◆ 사업목적

-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과제 발굴 및 활동지원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장
- 완주문화다양성 일상화 및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다양성 저변 확대 및 지속성 확보를 통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조성

◆ 운영방향

▶ 개인의 인식 변화에서 공동체의 실천으로

- 공동체와 공공영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장 및 실천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 지역 내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일상적·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인 ▶ 공동체 ▶ 지역으로 연결·확산 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문화다양성 과제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

▶ 참여·협력 주체에서 지역사회 변화 주체로

- 기존 사업을 통해 발굴된 문화다양성 주체들이 문화다양성 활동가로 성장·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활성화
- 문화다양성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내 문화다양성 활동 확장
-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운영 지원
- 소수문화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와 교류·환류하는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 연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성 도시'

- 소수문화 주체, 협력주체 및 참여자,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기록·환류 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사업 의미·성과 분석
- 문화다양성 제도화 추진

◆ 사업개요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 추진목적** 기반마련
- 활동유형** 정책활동
- 주요참여자** 완주군민, 공공기관·시설·단체·공동체·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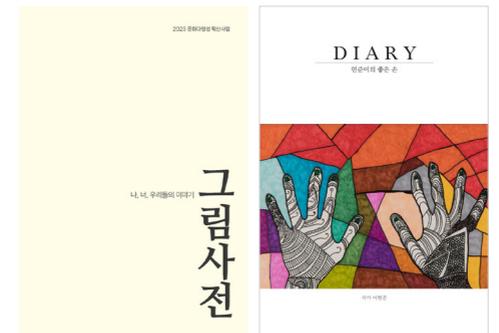
- 추진목적** 인식 및 가치확산
- 활동유형** 문화예술 활동
- 주요참여자** 완주군민, 장애문화예술인, 주민 그림 공동체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

- 추진목적** 기반마련
- 활동유형** 워크숍
- 주요참여자** 완주군민, 이주민, 문화기획자·활동가, 문화다양성 활동가 등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조건없음'

- 추진목적** 상호교류
- 활동유형** 문화예술 활동
- 주요참여자** 완주군민, 어린이, 시니어, 장애인, 공동체 활동가, 문화예술인 등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단 '청소년 소수다'

- 추진목적** 문화권 보장
- 활동유형** 문화예술 활동
- 주요참여자** 청소년, 완주군민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 추진목적** 인식 및 가치확산
- 활동유형** 축제·네트워크
- 주요참여자** 완주군민, 문화예술인, 도서관, 독립서점, 공동체 등



문화다양성 리뷰 '다양성N'

- 추진목적** 홍보 및 캠페인
- 활동유형** 아카이브·네트워크
- 주요참여자** 완주군민, 문화다양성 활동가, 사업참여자 등



◆ 운영결과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참여인원	협력주체
28 개	221 회	14,582 명	87 개

◆ 협력

거리출판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천면주민자치위원회, 경천애인작은도서관, 구이생활문화센터, 기차길작은도서관, 남양사이버아파트 경로당, 널리널리 흥흥, 놀이교육·공예협동조합 놀터, 늘푸른그룹홈, 다애공동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동상생활문화센터, 되살림 공동체, 두배공간, 들림협동조합, 따라쥬협동조합, 림보책방×느림보식탁, 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만둣협동조합, 만큼, 모두의방학, 모모씨마을, 모악작은도서관, 무지개작은도서관,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문화이장, 물푸레 공동체,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민들레 공동체, 블루피쉬, 버즈더퍼즈, 복많은, 복합문화지구 누에,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책마을, 소리·점·빵, 소통연구소 잇다, 손수공방, 씨앗받는 농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예수재활원, 오픈스튜디오 : 에이·알·티, 완주군가족센터,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주간보호센터,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완주다가온센터, 완주다문화공동체 보물섬, 완주떡메마을,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완주풍류학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용꿈작은도서관, 용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울곡마을 경로회관, 은혜의동산, 이서노인복지센터, 이서면행정복지센터, 이서문화의집,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익산시여성농민회, 자연숲어린이집, 0set(제로셋)프로젝트, 전북도립미술관, 전스비주얼랩, 전북연구원, 창작극단 창연, 천사공동체, 청춘방앗간, 토닥토닥, 평리마을 청년회관, 평리마을 경로당, 평리마을 마을회관, 플리커책방 소양고택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완주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한사랑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02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단 '청소년 소수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완주군민, 장애문화예술인과 함께 지역에서 만든 홍보물,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지역과 주민의 삶을 표현하는 문화다양성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이미지는 누구나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공공누리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3. 9. ~ 12.

◆ 사업결과

			
운영횟수	참여인원	협력주체	제작 건수
13 회	177 명	6 곳(명)	29 건

◆ 사업내용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사전간담회

- 운영기간 2023.9~11
- 장 소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외 완주군 일원
- 운영횟수 4회
- 참여인원 25명(주민 그림 공동체, 장애문화예술인, 관계기관 담당자 등)
- 내 용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운영계획 공유 및 활동 방향 협의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운영

- 운영기간 2023.10~12
- 장 소 화산골작은도서관,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외
- 운영횟수 8회
- 참여인원 77명(주민 그림 공동체, 예술인, 장애문화예술인, 관계기관 담당자 등)
- 협 력 대애공동체,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물푸레공동체, 완주군장애인복지관, 화산골작은도서관
- 내 용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

· 세부운영내용

구분	순	일시	장소	내용
주민 그림 공동체 '물푸레' (5회)	1	10.16(월) 13:30~15:30	화산골 작은도서관	- [특강]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스테레오 타입 이미지 분석하기 - 강사 : 경희령(미디어 활동가)
	2	10.30(월) 13:30~15:30	화산골 작은도서관	- [멘토링] 일상생활, 주변 이웃의 모습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이미지 기획하기 - 멘토 : 여은희(예술인)
	3	11.06(월) 13:30~15:30	화산골 작은도서관	- [멘토링] 문화다양성 이미지 스케치 및 채색 작업 진행 - 멘토 : 여은희(예술인)
	4	11.20(월) 13:30~15:30	화산골 작은도서관	- [멘토링]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 - 멘토 : 여은희(예술인)
	5	12.04(월) 13:30~15:30	화산골 작은도서관	- [멘토링] 문화다양성 이미지 완성 - 멘토 : 여은희(예술인)
장애 문화 예술인 (3회)	1	11.30(목) 10:00~12: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활동] 색을 통해 문화다양성 경험하기, 현재 작업 중인 그림 공유하기 - 이끄미 : 이경선(미디어 교육자)
	2	12.07(목) 10:00~12:00	어울림 카페	- [활동] 컬러링 페이지와 증강현실 앱을 활용해 자신의 선호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현재 작업 중인 그림 공유하기 - 이끄미 : 이경선(미디어 교육자)
	3	12.14(목) 10:00~12:00	어울림 카페	- [활동] 완성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이끄미 : 이경선(미디어 교육자)

문화다양성 이미지 '그림사전' 배포

- 운영기간 2023.12
- 참여작가 12명
- 제작작품 27작품
- 배포방식 온·오프라인 배포
- 내 용 문화다양성 이미지 '그림사전' 전시존 운영, 디지털 이미지 및 템플릿, 도록(인쇄물) 등 배포

순	일시	장소	내용
1	12.28(수) 10:00~18:00	삼례책마을	- 문화다양성 이미지 전시존 운영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공유회 연계 추진)
2	2023. 12	오프라인	- 문화다양성 이미지 '그림사전' 도록 배포(200부)
3	2023. 12	온라인	- 문화다양성 이미지 디지털 파일 및 템플릿 배포 : 공공누리,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주요성과

- 주민, 소수문화 주체 중심의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구성·운영을 통해 농·산촌 지역 주민, 장애인의 삶을 담은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배포
- 변화하는 농·산촌 지역 주민의 삶을 이미지로 제작·배포함으로써 농·산촌 지역과 성별 등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 계기 마련
-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의 자기 인식과 사회활동을 당사자가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이를 다른 장애유형의 사람들, 비장애인과 공유함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확장

'그림사전'에 담긴 이야기

“ 우리의 삶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그림사전'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홍보물이나 광고 속에는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성, 밀짚모자와 장화를 착용한 농부, 교복을 입은 청소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런 이미지들이 완주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림사전'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이웃들의 삶을 진정성 있는 이미지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파스타를 만드는 어르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일하는 농부, 직장 생활을 하고 여행을 즐기는 장애인.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웃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들은 주민 그림 공동체 '물푸레'와 장애문화예술인이 함께한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 모임'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2명의 작가가 자신의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려낸 27편의 작품들을 통해 다채로운 완주의 삶과 이야기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차 한잔의 여유

- 작가 김수정
- 작가의 말 “언니랑 함께 카페 간 걸 그렸어요. 또 같이 가고 싶어요.”



나의 이쁜 둘들이

- 작가 김옥선
- 작가의 말 “간식을 주면서 저하고 뽀뽀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가족이죠, 완전히.”



행복한 가족모임

작가 김옥선

작가의 말 “요즘은 명절 때도 자식들이 일찍 못 오잖아요. 다들 맞벌이라... 그래서 남편이랑 시숙이랑 이렇게 같이 해요.”



나는 그림이 좋아요

작가 김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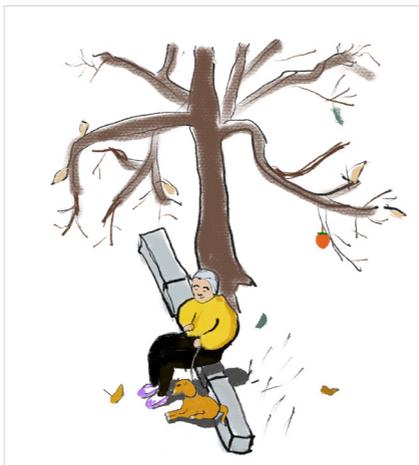
작가의 말 “대단한 작품성 같은 건 보이지 않지만, 그림 그리는 자체가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리는 건데 나중에는 저만의 기법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아빠는 작업 중

작가 김재이

작가의 말 “제 주변 사람들을 그렸어요. 아버지도 그리고요.”



우리 동네 할머니

작가 김재이

작가의 말 “저희 마을이 시내가 아니고 외곽인데 연로하신 분들도 정겹게 지내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는 동네 할머니가 있으신데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들의 날

작가 김재이

작가의 말 “정신장애 친구들과 함께한 매드 프라이드 축제 모습이예요.”



한사랑 선생님과 차 타고~

작가 김재이

작가의 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같이 차 타고 어디 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자수하는 나

작가 김종임

작가의 말 “자영업하면서 업무에 있다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걸 떠올렸어요. 자수나 퀼트, 손뜨개를 하는 제 모습이예요.”



막걸리 한잔

작가 김현숙

작가의 말 “저는 원래 농사일 할 때 몸빼바지를 안 입었거든요. 지금도 후드티랑 청바지 이런 거 입고 일해요.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면서 충전하는 거죠.”



완주 1호 원예치료사

작가 김현숙

작가의 말 “원예치료라는 개념이 아직 낯설었을 때 활동을 시작 했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완주 1호 원예치료사일 거예요.”



파를펠레 할머니

작가 변돌매

작가의 말 “우리 고장에서 나는 재료로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농사짓는다고 하면 나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파스타도 만들어 먹고 그럴 수 있거든요.”



화산사랑

작가 변돌매

작가의 말 “트랙터는 여성들이 할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트랙터를 타시면서 농사도 짓고, 기타 치면서 여가도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나는 운전을 잘해

작가 이선옥

작가의 말 “제가 운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는 게 많잖아요. 산도 보고, 풍경도 보고, 참 좋아요.”



신난다 선욱이

작가 이선옥

작가의 말 “시골에 취미생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난타를 배우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인어공주 같은 내 모습

작가 이인자

작가의 말 “저를 그렸어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아크릴화를 그리며) 내가 제일 잘 나가

작가 이춘희

작가의 말 “저희도 농부의 일원이고 집에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림은 생활의 일부예요.”



(털고무신) 행복의 발자국

작가 이춘희

작가의 말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지역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털고무신에 그림을 그려 나눠드렸어요.”



가을 단풍 바라보기

작가 이현준

작가의 말 “은행나무를 봤어요.”



내가수영장에서

작가 이현준

작가의 말 “수영을 하는 현준이에요.”



둘이 함께 산책

작가 이현준

작가의 말 “엄마랑 같이 산책해요.”



떨어지는 별뚱뚱 바라보기

작가 이현준

작가의 말 “가족과 순천만국가정원에 갔어요.”



판다와 나

작가 이현준

작가의 말 “요즘 푸바오가 좋아요.”



현준이의 좋은 손

작가 이현준

작가의 말 “그림을 그리는 현준이의 손”



사과 전지하는 남편

작가 임명화

작가의 말 “남편이 사과 전지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사과를 심는 걸 반대했었는데 남편이 한 그루에 수익이 얼마라며 설득했거든요. 5년이 넘었는데,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바다여행

작가 정연아

작가의 말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과 여수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행복한 직장생활

작가 정연아

작가의 말 “제가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림사전’과 함께한 순간들

“ 그림을 그리고, 그림사전으로 함께 하다

변돌매 (주민 그림 공동체 ‘물푸레’)

노을빛이 붉게 물든 산과 들녘, 저물어 가는 황혼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본다. 우리의 청춘이 눈부시게 아름다울 때도 있었지만 저물어 가는 황혼은 포근한 자연스러움이 있지 않은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 물푸레 공동체 회원들의 인생 2막을 바라보면서 벅찬 감동을 느낀다.

이제는 추억이 된 첫 수업 시간.

완주문화재단의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여은희 작가와 만나 아크릴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물감과 붓을 처음 대했을 때 벅찬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였지만 여은희 작가님은 물푸레 회원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함께 해 주셨고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그려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완주문화재단, 여은희 작가님과의 인연은 4년이란 세월 동안 이어졌고 그 결과 2023년 전북미술대전(이춘희)과 온고을 미술대전(김옥선, 이선옥, 이춘희, 변돌매)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완주문화재단과 여은희 작가님은 우리 물푸레 회원들의 성장 발판이 되어주었다. 일상에 찾아온 그림은 인생의 숨비소리처럼 전환점이 되었다. 4년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물푸레 회원들은 각자 다른 색깔을 품고 사랑을 만들어 지키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다.

올해 완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에 함께 하기로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어떤 그림이 시골 생활이 가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림이 될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다. 물푸레 회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주변의 일상들을 그려냈다. 마음과 생각을 모으니 해낼 수 있었다.

나는 두 가지 그림을 그렸다. 첫 번째 <파르펠레 할머니>는 지역의 농산물로 파스타를 만드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농산물로 된가를 만든다고 하면 나물이나 한식 같은 것만 떠올리는데 나는 종종 우리 농산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곤 한다. 파르펠레 파스타의 리본 모양을 보면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 행복한 기분이 든다. 다양성과 새로움을 신나게 표현하는 파르펠레 할머니처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마을의 식문화를 공유하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그림 <화산사랑>은 트랙터를 몰고 농사를 지으며, 힘든 일을 마친 후 한적한 곳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여성을 그렸다. ‘트랙터’ 하면 여성이 잘 다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농사짓는 여성들도 있다. 그뿐 아니라 여가 시간에는 기타도 연주한다. 그렇게 사는 주민의 모습이 멋져 보여서 그리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와 삶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을 전하고 싶었다.

물푸레 회원들과 함께 그림사전을 그리면서 그림에 재미를 더할 수 있었다. 나와 가족, 이웃의 모습을 그리면서 행복했고 우리 안의 특별함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받은 것을 지역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림사전’과 함께한 순간들

“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사전’ ”

이경선 (미디어 교육자)

계절이 지나가는 늦은 가을, 이른 겨울의 어느 날. 그림을 사랑하는 장애인 다섯 분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처럼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와 다른 장소에도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과 기쁨이 되는 모임입니다. 저는 장애인 ‘화가’ 다섯 분,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들과 함께 모임을 진행한 ‘이경선’이라고 합니다.

‘화가’ 다섯 분 중 세 분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분들이었고, 나머지 두 분은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공동체인 세 사람을 제외하면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이었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필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사회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라는 큰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시 초개인의 시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두 손을 맞잡아 인사하던 반가움은 혹시 모를 불안 속에 마스크 너머 눈인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SNS나 미디어를 통해 아직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나름의 안도로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겨울, 저는 세 번의 ‘그림사전’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이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 뜨끈한 방바닥에 이불을 반쯤 덮고 누워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김재이’님도,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은 마음에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다애공동체 ‘김수정’, ‘이인자’, ‘정연아’님도, 자신의 방에서 종이와 물감으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이현준’님도 이 모임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와 평소 작품 활동 등을 소개하고 공감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 때 서로를 향한 호기심이 가득하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경계의 눈빛이 아닌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설렘의 눈빛이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무언의 자기소개와 ‘당신의 그림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타인 앞에서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공감받는 경험은 우리 모임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소재와 재료로 완성해 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 ‘다름’과 ‘새로움’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그 그림에 얽힌 경험적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우리 모임원들이 완성한 작품은 비장애인들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마음을 울립니다.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거나 자동차를 타고 외출하고, 때로는 언니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인어공주’처럼 예쁜 공주님을 꿈꾸며 가상의 나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누어서 해야만 하는 ‘일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장애인은 이런 모습이어야만 해’, ‘장애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의 담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나온 결과물(작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사람 인(人)자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들은 다르지만, 저는 ‘丨’과 ‘丨’인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는 해석을 좋아합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두 사람 이상이 어울려 지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듯 합니다. 이번 모임에서처럼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만남’을 지속하고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설의 선생님들, 가족의 도움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때로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고 가는 수고로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그림사전’ 모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기관 관계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

문화다양성 사업참여자, 공동체 활동가, 문화예술 강사·기획자 등과 함께 문화 다양성을 알아보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문화 다양성 관점을 반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업기간 2023. 8. ~ 11.

◆ 사업결과

 운영횟수 21 회	 참여인원 324 명	 협력주체 10 곳(명)
---	--	--

◆ 사업내용

문화다양성 이해 워크숍

- 운영기간 2023.10.4(수)~11.22(수)
- 장 소 완주군가족센터 평생배움터
- 운영횟수 8회
- 참여인원 97명
- 협 력 완주군가족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내 용 문화다양성 이해 특강 및 실습 프로그램 멘토링, 공유회 등

· 세부운영내용

순	날짜	일시	장소	내용
1	10.4 (수)	09:30 ~12:00	· [오리엔테이션]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소개 및 참여자 자기소개	완주문화재단
			· [특강1] 문화다양성으로 만나기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2	10.4 (수)	13:00 ~15:00	· [특강2]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다양성	최선영 (복합관)
3		15:00 ~17:00	· [특강3] 공간과 문화다양성	신재 (Oset 프로젝트)
4	10.11 (수)	10:00 ~12:00	· [특강4] 지역문화와 문화다양성	장세길 (전북연구원)
5		13:00 ~15:00	· [특강5] 혐오와 차별에 관하여	이정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		15:00 ~17:00	· [멘토링1] 문화다양성 활동 실습 프로그램 기획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7	10.18 (수)	10:00 ~12:00	· [멘토링2] 문화다양성 활동 실습 프로그램 세부 기획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8	10.19 ~11.18	자율 운영	· [실습]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
9	11.22 (수)	09:30 ~12:30	· [공유회] 문화다양성 활동 결과공유 · 사업 평가 및 2024년 활동 제안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문화다양성 실습 프로젝트

- **운영기간** 2023.10.19(목)~11.18(토)
- **장 소** 완주군 일원
- **운영횟수** 13회
- **참여인원** 227명
- **협 력** 민들레 공동체, 복합문화지구 누에, 씨앗받는 농부, 완주군가족센터, 완주다가온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장애인문화예술네트워크, 천사공동체
- **내 용** 지역별, 공간별 이슈를 반영한 문화다양성 주제 선정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세부운영내용

순	기간 및 장소 (운영횟수)	주제	참여자	세부 내용
1	10.30(월)~11.30(목) 고산면 일원 (총 3회)	환경	박미란	·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고? - 1회 :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 나누기, 무경운 농법과 기존 농법의 차이 알아보기 - 2회 : 다큐 <대지에 입맞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 3회 :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부와의 대화, 무경운 농법 농산물로 만든 음식 나누기
2	10.30(월), 11.6(월) 복합문화지구 누에 (총 2회)	문화 다양성	우은성	· 알고 나면 모두 이웃-이웃을 그리다 - 1회 : 문화다양성 관련 영상과 그림책을 함께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문화다양성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2회 : 서로를 모델로 그림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내가 본 너, 네가 본 나 어떻게 다를까?)
3	11.1(수)~11.15(수) 용진면 일원 (총 3회)	이주	최치은	· 우리는 완주에 산다 - 1회 : 문화다양성 사례 소개 및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해보기 - 2회 : 완주로 이주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문화 활동, 공동체 활동을 알아보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 3회 : 우리와 같지만 다른 이주민, 이주여성의 문화 경험하기

순	기간 및 장소 (운영횟수)	주제	참여자	세부 내용
4	11.1(수) 복합문화지구 누에 (총 1회)	이주 장애	김나은 김수아 이선화 신지수	· 커피와 차로 만나는 문화다양성 -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베트남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11.3(금) 다가온센터 (총 1회)	이주	이선화	· 베트남과 문화다양성 - 베트남 문화 소개 및 음식 체험 - 베트남과 한국 문화의 공통점, 차이점 찾아보기
6	11.4(토), 11.11(토) 다가온센터, 완주문화재단 (총 2회)	이주	문지아	· 캄보디아 문화 이해하기 - 캄보디아 문화 소개 - 한국의 비석치기와 비슷한 캄보디아 전통놀이 '버엉꾼' 함께하기 -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로 캄보디아 음식 만들기
7	11.18(토) 천사공동체 (총 1회)	문화 다양성	신지수	· 다르면 다양하다 - 자신을 동물에 빗대어 소개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보기 -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기 -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주요성과**

- 지역 주민, 문화예술·공동체 활동가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 전반에 대한 경험 확대
-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교육, 문화예술 활동,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문화다양성 관점 반영 시도
- 실습 프로젝트를 통한 이주민,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년, 귀농·귀촌인, 환경활동가 등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주민들의 교류 계기 마련

‘점점이면’과 함께한 순간들

“ 점과 점이 만나 면을 만드는 시도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2023년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확산되는 것일까? 대답은 아쉽게도 ‘아니요’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 한시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욱 존중되거나 확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한국 정부의 비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사업은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0여 년 전의 한국 사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적어도 ‘문화다양성’이란 단어 자체를 접하는 일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넘어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회자되는 빈도도 훨씬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성원 각자의 문화다양성이 이전보다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혐오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이전보다 더욱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특정한 어떤 소수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문화다양성은 바로 ‘나’를 위한 가치입니다. 내가 가진 다양한 모습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지, 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은 내가 아닌 너를 이해시키는 활동 대신, 바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다양성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획일화된 사회구조와 통념 속에서 훼손되고 왜곡됐습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모두 다양한 가치관의 결합이지만,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다양성이 증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내 주변에서 문화다양성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 완주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일상에서 나의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험가이자 실천가를 만드는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점점이면’의 참여자들은 이번 과정을 시작하며, 먼저 나를 이루게 하고 나로부터 존재하는 다양성을 일상에서 발견해 나가기 위한 학습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성을 인지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마치 공기처럼, 그동안 내 안과 밖에 늘 존재해 왔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과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문화다양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참여자들은 각자의 활동에서 내가 가진 다양성을 드러내고 이웃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은 참여자들의 초기 기획에 대해 협의와 멘토링을 통해 익숙한 방식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더욱 다양한 이웃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다른 나라 문화 체험 활동이라도, 익숙한 공간에서 아동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다양성 관점을 접목하여 더 다양한 대상에게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실에 머물던 프로그램을 축제 현장으로 가져와 성인을 대상으로 실행하면서 지역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문화를 펼쳤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참여자들을 모집함으로써 주로 아동들에게만 시행되던 문화 체험 활동을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수정 진행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에서 더욱 다양한 이웃과 다양한 문화를 통한 만남의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기존에 함께하던 모임과 네트워크 안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언급하며, 더욱 많은 사람이 다양성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양성과 관련한 동영상 시청하고 다양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과 괴리된 또 다른 활동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접근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점점이면’의 참여자들의 또 다른 소득은 바로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관계 형성입니다. ‘점점이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이 결과공유회에서 이야기했듯, 평소 만나지 못하거나 기회가 없었던 국내외 이주민과 선주민, 또는 같은 아파트 이웃 간에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참여자 대부분이 이번 과정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을 혼자 기획하여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다른 이들이 대신해 주었거나, 전체 과정에서 일부만 참여했던 이전과 달리,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액이지만 프로젝트 기획, 홍보, 수행, 결과보고 및 평가까지 전체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특정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과의 협업 경험이 더 많은 주민에게 확장된 것 또한 참여자와 재단 모두에게 매우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점이면'을 함께한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진행한 재단 모두, 이번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여러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게 된 경험, 주민 간의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협업 경험이라는 매우 소중한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와 재단 모두 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문화다양성 활동가이자 모험가가 되어 일상에서의 실천을 실현하고 더욱 확장된 문화다양성 활동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점점이면’과 함께한 순간들

“ ‘점점이면’ 참여자 미니인터뷰

문지아



❓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2023년에 완주군가족센터에서 다이임 사업을 통해 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이해 강사로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 따라 수업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완주문화재단이라는 기관과 사업을 잘 몰랐고,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참여해 본 기회도 없었습니다. ‘점점이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해 알게 된 점이 있나요?

— 문화다양성 활동을 통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 가치관, 음식 등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줘서 놀랐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문화다양성을 좁은 의미로 바라보았는데 참여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국가, 인종, 언어뿐만 아니라 성, 계층, 세대, 지역 등 여러 문화적 영역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직접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보니 어떠셨나요?

— 실습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캄보디아 문화나, 음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했고, 요리도 잘 못하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참여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만두를 다 같이 만들었을 때 만두를 먹어 본 적 없는 아이도 맛있게 먹고 좋아해 주어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자신이 없었던 제가 이제 대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면서 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단
'청소년 소수다(少守多)'**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의 모습을 담은 단편영화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업기간** 2023. 7. ~ 12.

◆ **사업결과**

 운영횟수 17회	 참여인원 252명	 협력주체 10곳(명)	 제작 건수 11건
---	--	---	--

◆ **사업내용**

'너랑 나랑' 영화제작 프로그램

- **운영기간** 2023.7~10
- **장 소**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외 이서면 일원
- **참여대상**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
- **운영횟수** 8회
- **참여인원** 169명
- **협 력** 완주미디어센터, 이서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내 용** 문화다양성 이해 특강 및 문화다양성 영화제작 워크숍, 상영회



· **세부운영내용**

순	날짜	시간	내용	진행/강사
1	7.31 (월)	10:00~13:00	· [특강] 청소년과 함께 생각해 보는 문화다양성	이정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8.1 (화)	14:00~16:00	· [워크숍]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시나리오 제작하기	완주미디어센터
3	8.2 (수)	10:00~14:00	· [워크숍]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 제작하기	완주미디어센터
4	8.3 (목)	10:00~14:00	· [워크숍] 촬영 장비 교육 및 연습 촬영, 리허설	완주미디어센터
5	8.4 (금)	10:00~14:00	· [워크숍] 단편영화 촬영 1	완주미디어센터
6	8.5 (토)	10:00~14:00	· [워크숍] 단편영화 촬영 2	완주미디어센터
7	10.14 (토)	10:00~14:00	· [워크숍] 단편영화 촬영 3	완주미디어센터
8	11.22 (수)	14:00~18:00	· [상영회] 단편영화 '무지개' 상영, '기프트'와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공감 토크	이정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제작 콘텐츠**

- **작 품 명**: 무지개
- **장 르**: 극영화
- **상영시간**: 8분 23초
- **시놉시스**: 아빠의 이동으로 '억지로' 완주로 이주한 소녀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주변에 없음을 실망하고, 지역 또래들과도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는다. 소녀는 완주와 지역 청소년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 **수 상**: 제5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완주 '아동권리영화제' 특별상

완주 도보 탐험 프로젝트 '걷다보면'

- **운영기간** 2023.10~11
- **장 소** 완주미디어센터 외 고산면, 구이면 일원
- **참여대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1~2학년
- **운영횟수** 8회
- **참여인원** 83명
- **협 력** 완주미디어센터,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 **내 용** 문화다양성 이해 특강, 지역탐사 및 숏폼 콘텐츠 제작

세부운영내용

순	날짜	시간	내용	진행/강사
1	10.20 (금)	14:00~17:00	·[특강] 걷기로 생각해 보는 문화다양성	경희령 (미디어 활동가)
2	10.21 (토)	10:00~13:00	·[워크숍] 숏폼의 특성과 제작 과정 이해, 촬영 실습	완주미디어센터
3		14:00~17:00	·[지역탐사] 고산면 일원 도보 탐방 (고산미소시장, 세심정, 완주향교, 청춘방앗간)	완주미디어센터
4	11.10 (금)	14:00~17:00	·[워크숍] 숏폼 콘텐츠 기획·구성	완주미디어센터
5	11.11 (토)	14:00~17:00	·[워크숍] 숏폼 콘텐츠 편집	완주미디어센터
6	11.18 (토)	10:00~13:00	·[지역탐사] 구이면 일원 도보 탐방 (전북도립미술관, 완주로컬푸드, 행복정거장)	완주미디어센터
7	11.18 (토)	14:00~17:00	·[지역탐사] 구이면 일원 도보 탐방 (구이저수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완주미디어센터
8	12.2 (토)	14:00~17:00	·[워크숍] 숏폼 콘텐츠 편집	완주미디어센터

· 제작 콘텐츠

- **시 리 즈**: 완주 워킹로그 '걷다보면'
- **장르/시간**: 숏폼(각 1분 미만)
- **콘텐츠 수**: 10편
- **기획의도**: 학교 진학을 위해 낯선 곳으로 온 우리. 학교와 기숙사를 왔다 갔다하는 생활의 연속. 우리가 완주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일까?



◆ 주요성과

- 귀농·귀촌인,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 내 '이주민'에 대한 논의를 부모님의 직장 이동, 학교 진학 등으로 인해 이주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포함한 관점으로 확장
- 청소년들의 관점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과 생각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경험 확대
- 워크숍 종료 후에도 문화다양성 선언에 참여하고, 제작 작품을 2023 아동인권영화제에 출품하는 등 후속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문화다양성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청소년 소수다’와 함께한 순간들

“ ‘공감’, 사소한 만남을 통한 깨우침

- 이서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두 번의 만남을 회상하며 -



이정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은 매해 여름방학마다 모여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단편영화를 제작합니다. 완주문화재단과 완주미디어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너랑 나랑 영화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짧은 기간에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 난이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문화다양성’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입입해야 하니 더 어려운 일이지요.

참여 청소년들은 교육과 실습을 통해 영화제작 과정을 이어가는데 저는 2022년부터 두 해 동안 시작을 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이고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문화는 다양하지,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이 당연해!”로 통(!) 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권’과 ‘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큼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상관없는 것으로,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배려나 존중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일쑤입니다. 강사로서 저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지적인 자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물들이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 유독 붙잡게 되는 것이 ‘만남과 대화’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편견을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에는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민혁님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영화 <슈퍼스타>를 함께 보고, 난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혁님이 중학생 시절, 친구들의 우정과 연대로 난민 인정을 받게 된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난민 인권을 향한 노력이 특정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이 친구이자 이웃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도 당장 내 곁에 난민인 친구는 없더라도 난민과 사회적 이슈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패션모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난민 청소년 기프트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작업부터 연기,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한여름 동안의 땀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올해 제작한 작품 <무지개>뿐 아니라, 지난해 제작된 작품 <다른 길>, <일상>도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난민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도움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2023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이하여, KBS ‘시사기획 창’ 제작팀이 ‘달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미지의 영역이었던 달에 대해 인류가 그려왔던 것처럼, 한국 사회 역시 난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을 갖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일곱 명(그중 네 명이 난민 청소년)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단편영화 <도움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8회 난민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되었는데요. 영화 상영 후에는 제작에 참여한 기프트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라 영화제작 과정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프트님 역시 이서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만든 작품을 유심히 본 터라, 관련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기프트님은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참여자들이 제작한 세 작품 모두 주제를 잘 드러냈으며 작품별로 누군가의 연기가 참 좋았다, 목소리가 멋지다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프트님에게는 난민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체류자격 등 현실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습니다.

“브랜드는 아디다스를 좋아하세요? 나이키를 좋아하세요?”

“패션을 보면 검은색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프트 님이 들려주는 ‘난민’ 이야기에 집중하던 우리들 사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확 전환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직접 만날 때, 처음에는 낯섦으로 인하여 긴장과 불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흔하고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의 만남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좋을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특! 하고 던져진 가벼운 질문 덕분에 긴장의 끈이 확 풀어졌습니다. 절묘하지요. 역시 프로그램의 성패는 기획자가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달렸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기획자와 강사들은 판을 깔 뿐, 오색 창연하게 수를 놓는 것은 역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나 기프트 님 모두,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에 서로에게 절로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 모습에 괜히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다름’을 끊임없이 구분 하려는 것이 제 안에도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첫 질문이 나오기까지 정적이 흐르는 편인데 이번에는 틈조차 없었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아 제한된 시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고 싶은 책, 『혐오없는 삶』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바시트안 베르브너라는 독일의 기자가 쓴 책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자’는 메시지가 사방팔방에서 전달되지만, 정작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나서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더라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이니깐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그는 사소한 만남에서 ‘공감’의 힘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마을, 학교, 경찰서 등을 다니며 취재하며 발견한 희망을 그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공감은 우리가 이전에 멀리서 붙여두었던 라벨을 상대의 육체에서 떼어 내 버린다.
적(敵), 림족(집시), 난민, 외노자(외국인노동자를 비하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이 단 하나 사람만 남을 때까지 그 의미를 잃는다.” (147p)**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과 김민혁 님, 기프트 님과의 만남 역시 어쩌면 사소합니다. 단지 한 번에 불과했으니까요. 다만, 두 분과의 만남을 통해 ‘이전에 멀리서 붙여 두었던 정체성 꼬리표’를 떼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존재와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의 만남으로 완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공감하며 품은 마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주문화재단 블로그에 적힌 글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존재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 소수다’와 함께한 순간들

“ 문화다양성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오준서 (삼우중학교 3학년)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을 매일 다니면서 우연히 문화다양성에 대한 단편영화를 제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스터를 보자마자 작년에 영화제작 참여를 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저도 이번에는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혼자 참여하기에는 긴장이 되어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할 생각을 하니 설레어 첫날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매우 더웠던 8월의 첫날, 나이와 성별이 각기 다른 여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영화제작을 바로 하고 싶었던 제 기대와는 반대로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지루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진행된 시나리오 작업 및 역할 분담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첫 촬영을 할 때는 목소리도 너무 작고, 시선 처리가 잘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재촬영을 할 때부터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발전하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꿈이 없었던 저는 이번 영화제작 이후로 영화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 스태프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다시 화해를 하며 평소보다 더 친해지게 되는 등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계속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시나리오를 쓰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함께 만들다 보니 영화배우라는 꿈이 제게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영화제작을 마치고 상영회를 할 때는 여러 친구들이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볼 생각에 걱정이 되고 많이 떨렸습니다.



친구들과 제작하는 영화의 주제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저는 첫 시간에 만난 특강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문화다양성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을 알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각해보니 제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문화다양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완주 이서인데 시골이어서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한번 시내를 나가려면 거리가 멀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영화의 줄거리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는 이서의 안 좋은 점만 생각했지만 영화를 구성하면서 이서는 '빙등제'라는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고 친한 친구들도 많고 친절할 이웃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곳의 생활도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시골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완주가 더 편리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청소년이 노력할 수 있다는 것도 담고 싶었습니다.

영화 상영이 시작된 후에는 연기를 더 잘할 걸 그랬다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동시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 중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문화다양성 공감 토크 시간에는 난민 청소년 기프트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참여할 때는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로도 참여해서 촬영 장비를 익히고, 미래에는 배우와 스태프 모두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 소수다'와 함께한 순간들

“ 완주 도보 탐험 프로젝트 ‘걷다보면’ ”

홍다인 (미디어 교육자)



문화다양성. 사람마다 서로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차이를 스스로없이 받아들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단 청소년 소수다 완주 도보 탐험 프로젝트 '걷다보면'을 함께 하게 되면서 스스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 보았다. 문화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진정 삶에서 마음에서 우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와 문화예술기관, 지역사회의 연계를 바탕으로 학업으로 인해 완주로 이주한 청소년들이 완주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준비되었다. 이주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완주의 모습과 이에 대한 생각을 미디어로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총 3시간씩 8차시에 걸쳐 만나며 지역을 탐사하고, 이를 솟품으로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차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우리 주변의 문화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길과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학업으로 인해 완주로 이주한 참여 청소년들이 걷고 싶은 길에 대해서도 들어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경사가 없고 완만한 곳', '조용한 곳', '나무가 울창한 숲', '공원이나 호수의 주변',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람이 부는 넓은 초원' 등을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풍경이었지만 완주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에게는 혼자 찾아가기 어려운 길들이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솟품에 대해 알아보고 도보 탐방계획을 수립했다. 완주미디어센터를 기점으로 '청춘방앗간-고산향교-세심정-미소시장' 순서로 도보 탐방을 하기로 정했다. 참여자들은 대광반점에서 파는 물짜장을 먹어본 뒤 "전주에서 유명하다길래 먹고 싶었는데, 막상 파는 데를 몰라서 못 먹었다"며 "직접 먹어보니 맛있었다"고 했다.

고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청춘방앗간에도 들렀는데 참여 청소년들은 처음 보는 주제의 책들과 평소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이 많이 있어서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했다. 청춘방앗간에는 매거진B 전권이 다 있었는데 이 잡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엿볼 수 있었다.

고산은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돌아갈 때 버스를 타기 위해 자주 오는 곳인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청춘방앗간에 머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산학교와 세심정을 걷는 시간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완주를 영상으로 담고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다. 고산 시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찐빵을 간식으로 먹었는데 학교에서는 잘 먹지 못하는 메뉴라며 맛있게 먹었다. 고산 탐방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청소년들의 세상이 넓어지는 시간이었다. 영상 전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서로가 바라본 고산에 대한 인상을 공유하며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만남은 영상 편집 실습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은 촬영한 영상을 보고 숏폼 영상을 기획한 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 편집 툴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 기획한 숏폼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은 평소 자주 본 유튜브 쇼츠 느낌의 이미지와 효과 중심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고산을 함께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와 느낌을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두 번째 도보 탐방 지역은 구이를 선택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북도립미술관-완주로컬푸드 모악점-행복정거장 모악점-구이저수지 둘레길-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순으로 탐방계획을 세웠다. 도보 탐방하는 날, 전날까지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탐방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구이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도슨트 설명을 들었는데 마침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넘어 하나의 객체로 비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경험이었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눈길을 걸어 완주로컬푸드 모악점을 둘러본 뒤 행복정거장에서 점심을 먹었다. 행복정거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완주의 로컬푸드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걸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걸을 때 한 참여자는 "하루 종일 학교에만 앉아있고 게임만 하다가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반갑고, 걷는 것도 힐링 되는 느낌이다. 앞으로 좀 더 자주 걸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천천히 걸으며 세상을 바라보니 주변의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는 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술에 대한 역사와 세계의 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술'이라는 하나의 음식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이어진 마지막 시간에는 숏폼 콘텐츠 편집을 마무리하며 함께 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보 탐방 시간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완주는 이런 모습이었다.



“만경강 말고 걸을 곳이 있나?”라고 생각했었지만 전북도립미술관이나 구이저수지 등 보고 걸을 장소가 많아서 놀랐다.”



“학교 근처보다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놀 것도 생각보다 많고, 볼 것도 많아서 자주 와서 놀면 좋을 것 같다.”



“찾아보면 재미있고 힐링되는 곳이 참 많다.”



“블거리가 생각보다 많고 먹을거리도 생각보다 맛있었다. 완주군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달라졌다.”



도보 탐방 프로젝트 '걷다보면'은 청소년들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완주의 길들을 걸으며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함께한 청소년들이 완주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미디어로 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03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활동지원 '조건없음'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활동지원 '조건없음'

지역별, 마을별로 필요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 하고, 소수 문화 주체와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사업기간 2023. 9. ~ 12.

◆ 사업결과	 운영횟수 64 회	 참여인원 1,703 명	 협력주체 37 곳(명)	 제작 건수 6 건
--------	---	--	---	---

◆ 사업내용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 운영기간 2023.9~11
- 장 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밭놀이터, 누에아트홀 3전시실 외
- 참여대상 장애인문화예술인, 지역 거주 장애인, 장애인지원기관·단체, 완주군민 등
- 운영횟수 11회
- 참여인원 1,078명
- 공동주최 늘푸른그룹홈,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 협 력 널리널리 흥흥, 다애공동체, 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복합문화지구 누에,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완주군장애인합창단 '꽃', 한사랑
- 내 용 지역 내 장애인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조명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축제 공동 기획·운영

· 세부운영내용

◆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기획단 운영

- 운영기간 2023.9~11
- 장 소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외
- 참여대상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공동주최 기관·시설·단체 관계자
- 참여인원 26명
- 운영횟수 3회
- 내 용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사례답사 등

◆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 운영기간 2023.11.1(수)~5(일)
- 장 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밭놀이터 및 누에아트홀 3전시실
- 참여대상 장애인문화예술인, 지역 거주 장애인, 장애인지원기관·단체, 완주군민 등
- 참여인원 1,078명(공연 및 전시 출품 장애인문화예술인 91명)
- 운영횟수 9회
- 내 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제, 전시, 부대행사 등 운영
- 세부 프로그램

개막식·문화제 '함께'					
2023.11.1(수) 13:00~15:30,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밭놀이터 일원					
순	시간	구분	프로그램	참여인원(명)	장애인문화예술인(명)
1	13:00~13:10	축하공연	임실필봉농악	261	예수재활원 풍물단(7)
2	13:10~13:30	개막식	함께 여는 축제의 시작		개막선언(5)
3	13:30~13:50	댄스	흥해라, 님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댄스1팀(12)
4	13:50~14:10	영상	하니, 미니의 시 읽어주는 여자 베버의 시 읽어주는 남자		문화공동체 아리아리(3)
5	14:10~14:30	댄스	반달, 순정		장애인복지관 댄스2팀(18)
6	14:30~14:50	피아노	THE TOLLING BELL Op. 125 NO.8 외		하구은(1)
7	14:50~15:10	영상	하나의 첫사랑		문화공동체 아리아리(3)
8	15:10~15:30	축하공연	고향의 봄 외		완주군장애인합창단 '꽃'(35)

전시회 '우리'

2023.11.1.(수)~5(일) 누에아트홀 3전시실

순	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명)	장애문화예술인(명)
1	전시 개막식 '갤러리 투어'	작가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관람하는 갤러리 투어	72	27
2	전시회 '우리'	장애문화예술인이 제작한 공예·원예, 회화, 사진, 문학 등 작품 전시 (총 112작품)	376	58

부대행사

2023.11.1(수) 12:00~17:30,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밭놀이터 일원

순	프로그램 및 내용	진행	참여인원(명)	비고
1	비누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64	장애문화예술인, 장애인 당사자 진행 프로그램
2	반려화분 만들기 (냅킨 공예로 화분 장식하고 식물 심기)	은혜의동산	64	
3	천연염색, 머그컵 만들기 (천연염색 및 머그컵 전사 체험)	문화공동체 아리아리(한사랑)	19	
4	책갈피 만들기 (수어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완주군수어통역센터	32	
5	다 함께 시작하는 인권의 봄 (장애인 인권 캠페인)	완주군장애인복지관	72	
6	쿨링 완주 캠페인 (환경을 지키는 약속)	완주문화재단	92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 **운영기간** 2023.9~12
- **장 소** 완주군 일원
- **참여대상** 완주군민
- **운영횟수** 6개 프로그램 총 33회
- **참여인원** 383명
- **협 력** 남양사이버아파트 경로당, 널리널리 흥흥, 되돌림 공동체, 모두의방학, 배꽃뜰작은도서관, 완주다문화공동체 보물섬, 삼례문화예술촌, 소리·점·빵, 소통연구소 있다, 오픈스튜디오 에이·알·티, 토닥토닥, 화산골작은도서관
- **내 용** 이주, 환경, 젠더, 세대, 아동·청소년, 감정(표현의 다양성) 등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모집, 운영 지원

· 세부운영내용

◆ 프로그램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2023.9.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모집대상**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활동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강사, 공동체 활동가, 완주군민 등
- **모집내용** 지역의 문화다양성 이슈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지원내용**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컨설팅, 예산(300만원 이내) 및 공간·장비·홍보 등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원 지원
-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서류 접수와 동시에 서류 검토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진행) 상호 협의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 결정
- **선정 프로그램** : 6개



◆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순	프로그램	주제	기간·장소 (운영횟수)	운영 주체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결과
1	다시:발견 “내가 살던 고향은~”	이주	10.27(금) ~11.17(금) 북카페 보물섬 (4회)	오픈 스튜디오 에이, 알, 티	- 참여대상 : 이주여성 및 자녀 - 참여인원 : 73명 - 내 용 : 이주여성의 고향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만들기 워크숍 - 결 과 물 : 그림책 12개 (이주여성 5개, 자녀 7개)
2	발견클럽	젠더	11.22(수) ~11.30(목) 당가당가, 널리널리 흥흥 (3회)	모두의 방학	- 참여대상 : 지역 거주 여성 - 참여인원 : 25명 - 내 용 : 지역 여성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단어들을 영상으로 제작·배포 - 결 과 물 : 숏폼 영상 5편
3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세대 · 소통	10.22(일) ~11.26(일) 배꽃들 작은도서관 (6회)	배꽃들 작은도서관	- 참여대상 : 이서면 주민, 완주군민 - 참여인원 : 104명 - 내 용 : 세대 간, 개인 간의 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4	숲속의 음악가족	아동 · 청소년	12.3(토) ~12.4(일) 화산골 작은도서관 (2회)	소리·점·빵	- 참여대상 : 초등학교생 - 참여인원 : 15명 - 내 용 : 상징물을 통한 가족 구성원 탐색을 통해 관계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
5	우리 함께	감정 · 표현	11.5(일) ~11.14(화) 삼례문화 예술촌 외 (10회)	토닥토닥	- 참여대상 : 지역 예술인, 완주군민 - 참여인원 : 76명 - 내 용 : 슬픔을 대하는 각기 다른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연극, 낭독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으로 제작·발표 - 결과물 : 우리 함께 공연 프로그램
6	우리지역 지구가꾸미 원정대	환경	10.24(화) ~11.6(목) 남양사이버 아파트 경로당 (8회)	되돌림	- 참여대상 : 완주군민 - 참여인원 : 104명 - 내 용 : 시니어 세대와 함께하는 기후 위기 워크숍 및 친환경 활동 체험

· 제작 콘텐츠

- 시 리 즈 : 사람여행:발견클럽
- 장르/시간 : 숏폼(각 3~5분 내외)
- 콘텐츠 수 : 5편
- 기획의도 : 다양한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역 여성들의 삶이 이야기로 연결되는 사람여행



주민 주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 **운영기간** 2023.4~11
- **장 소** 완주군 일원
- **참여대상** 완주군민
- **운영횟수** 12개 프로그램 총 15회
- **참여인원** 227명
- **협 력** 따라쥬협동조합, 모악작은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 물푸레, 북카페 보물섬, 삼례문화예술촌, 울곡마을 경로회관, 이서면행정복지센터, 카페 따라쥬, 평리마을 경로당·마을회관·청년회관, 화산교회
- **내 용** 완주군 13개 읍·면에서 활동하는 '문화이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주민이 만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세부운영내용

순	프로그램명/내용	날짜 및 장소	운영횟수	참여인원(명)
1	내 얼굴을 지켜줘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밀짚모자에 그림을 그리며 농번기의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4.25(화) 화산교회	1	10
2	내 발을 포근함으로 물들이다 몸의 일부 중 가장 힘든 부위인 내 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털신에 그림을 그려 따스함과 포근함을 선물하는 시간	11.7(화) 화산교회	1	12
3	꼬리명주 나비와 함께 춤을 멸종위기종 쥐방울덩굴과 꼬리명주나비를 찾아 나만의 방식으로 그려보며 종 다양성 이해하기	8.19(토) 8.26(토) 신흥계곡	2	15
4	나도 시인이다 다양한 나라의 시를 읽고 써보며 문화다양성 이해하기	10.13(금) 모악작은도서관	1	10
5	장애인 문화 나드리! 함께 즐기고 맛보고 마을주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9.13(수) 삼례읍 일원	1	30

순	프로그램명/내용	날짜 및 장소	운영횟수	참여인원(명)
6	고수김치 만들기 고수로 김치를 만들며 지역주민과 이주여성이 교류하고, 새로운 맛을 통해 소통하는 프로그램	11.15(일) 보물섬 북카페	1	15
7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 이해와 존중 귀촌 예술인과 함께하는 이주민-선주민 교류 프로그램	10.26(목) 울곡마을 경로회관	1	5
8	우리의 전통문화 옛보기 아이와 함께 옛 문화를 알아보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	11.2(목) 평리마을 청년회관	1	20
9	우리 동네 소소한 공예생활 공예를 통해 연령별, 계층별로 다른 문화생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	11.24(금)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1	30
10	다뽏다뽏 재능 나누리 마켓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재능 나누리 마켓'을 통해 문화로 공감하는 시간	11.25(토) 카페 따라쥬	1	20
11	시와 함께하는 나도 크리에이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소통하는 디지털 예술 프로그램	11.20(월) 11.27(월) 배꽃뜰작은도서관	2	20
12	평리에서 다시 모이자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조와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마을 잔치 진행	11.3(금) 11.5(일) 평리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2	40

◆ 주요성과

- 지역 간 문화차이가 큰 완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발굴
- 마을, 공동체 등 생활공간 안에서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주도적으로 문화다양성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현장 중심 문화다양성 활동 확장
- 성별, 세대, 이주, 장애 등 다양한 주제의 문화다양성 활동을 통해 소수문화 주체에 대한 지역 내 인식 전환 및 소수문화 당사자의 활동 범위 확대

‘조건없음’과 함께한 순간들

“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를 함께 하면서...”

김언경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11월 1일,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가 풍물단의 우렁찬 연주로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완주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진짜 개최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완주문화재단에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탁회의를 한 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계속된 원탁회의에서 실행의 길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원탁회의에 참여한 우리는 ‘이러다 흐지부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멋진 축제가 만들어졌다. 여러 단체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리고 완주문화재단 담당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완주장애인들에게 ‘처음’을 알리는 멋진 ‘서로’의 축제가 열렸다.

회의를 하면서 축제에 대한 약간의 상상이 있긴 했으나 단순히 공연을 보고 즐기거나 장애인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열정의 현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매번 아리아리 회원들의 문화 활동만 함께 하다가 정신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넘치는 문화예술 능력을 보고 있자니 절로 감탄이 나왔다. 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다른 비장애인보다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축제를 경험하면서 온통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는 그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축제에 참여하는 동안 비장애인인 나에게도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같이 참여했던 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회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①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 신0순: 저는 ‘시 읽어주는 여자’ 영상 제작자로 그리고 천연염색 부스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리아리 대표님이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 황0정: 저도 ‘시 읽어주는 여자’, ‘하니의 첫사랑’ 영상 제작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하니의 첫사랑’은 제가 직접 쓴 시나리오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아리 대표님이 참여해 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 전0우: 아리아리 내에서도 영상을 따로 만드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영상 제작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시초가 되는 ‘시 읽어주는 여자’ 시리즈에 저도 참여했었어요. 그 계기로 ‘시 읽어주는 남자’ 영상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 김0이: 저는 평소 수채화 그림을 꾸준히 그려 왔고 아리아리 대표님 추천으로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연염색 부스에서 천연염색 강사로도 참여했어요.



②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

- 신0순: '시 읽어주는 여자' 영상으로 공모전에 선정되고 전시도 해 봤지만 이번 축제가 더 남달랐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전시만 했기 때문에 그냥 전시를 했구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제에서는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저에게 영상의 기획의도나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 등에 대해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당황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영화감독 같은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천연염색 부스 운영에 참여했는데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당당히 강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는데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했거든요. 이번 축제를 통해 저 자신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 황0정: '하나의 첫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공모전에 선정이 되긴 했지만 전시 공간에서 영상이 나오는 것만 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즐거워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까지만 해도... 뭐랄까 그냥 낙서처럼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진짜 이 영상의 제작자가 된 것 같아서 '시나리오 작가' 꿈이 작게라도 이루어진 것 같아 너무 기뻐요. 더욱 좋았던 건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고 '우리도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장애인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꿈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한 게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덕분인 것 같아요.
- 김0아: 저는 수채화를 꾸준히 그리긴 했어요. 물론 전시회도 몇 번 참여해 보기는 했는데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었던 건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저의 그림에 대해 관람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이라 많이 떨려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준비해서 멋지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 실력을 더욱 키워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는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림을 더 잘 그려야지 마음먹게 만들고, 다음에는 더욱 잘해야지 하면서 저의 꿈에 동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천연염색 부스에서 천연염색 강사로 참여했던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강사 인정을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천연염색 지도사는 한사랑 선생님의 권유로 취득하긴 했는데, 얼마나 사용할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라는 역할을, 저한테는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② 향후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세요?

- 박0우: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에 장애인 당사자들도 기획회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시설 담당 선생님들이 함께 회의를 하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축제도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축제이긴 했지만 기획회의 때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하면 또 다른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축제이니깐 우리의 의견도 많이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0관: 다른 시설 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해요. 우리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은 완주군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래요.
- 고0영: 장애인들의 축제도 좋지만 비장애인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어요. 완주군은 공동체가 많으니깐 다른 공동체도 함께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벽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장애인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회원들은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다양한 기회를 가져 보지 못했던 자신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었다며 그 감동을 전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아리아리' 회원들의 표정과 언어에는 자신감과 그들의 신나는 미래가 보였다. 그들은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가 또 다른 자신감을 넣어 준 선물 같은 '그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건없음’과 함께한 순간들

“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진행기

장미경 (널리널리 흥흥)

아빠는 택시운전사였다. 제작년 7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에, 아빠는 어느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고, 2년여의 병원 생활과 재활훈련을 거쳐 올 초에 집으로 돌아오셨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아빠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병변 장애를 동반한 신체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장애인이 되셨다. 지난 2년 동안 아빠와 우리 가족에게 휘몰아친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려니 지나간 일들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 사이에는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일상의 무너짐 같은 엄청난 균열들이 포개져 있다.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고 그 균열들 속에서 나의 소소한 일상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다시 재활병원으로 옮겼다가 또 큰 병원으로 이어지는 긴 간병 생활을 이어가며 오랫동안 해왔던 나의 생업인 미디어 수업과 영상 제작, 인터뷰 같은 일을 잘 해낼 수는 없었다. 들어오는 일을 대부분 거절해야만 했다. 프리랜서들에게 거절이란 수입 ‘제로’를 뜻한다.

올 한 해는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해보자는 다짐을 했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제 아빠도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일터로 나온 나는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한창 일이 들어와야 할 3~4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나를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해보자는 다짐은 사실은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제발 나에게 일을 주세요’라는 외침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진행 일도 맡게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다 아빠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지도 못한 부모 돌봄과 장애인 가족이 일상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11월 1일 오후 1시,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밭놀이터에서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가 ‘완주문화예술학교 풍물단’의 풍물 소리와 함께 막을 올렸다. 임실필봉농악을 신명나게 연주한 이들은 장애문화예술인들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는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는 지역 장애문화예술인들의 공연과 영상을 함께 보고 즐기는 문화제 ‘함께’와 공예, 시, 사진, 회화 등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 ‘우리’로 구성되었다. 이 행사는 (재)완주문화재단과 장애인 지원 기관·시설·단체 8곳 (늘푸른그룹,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한사랑)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풍물단의 개막 축하공연이 끝나고 장애문화예술인 다섯 명이 무대 위로 올라와 ‘개막선언’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댄스팀의 ‘흥해라’와 ‘반달’, 정신장애인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뮤직비디오,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하구은 씨의 피아노 연주,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의 ‘고향의 봄’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같은 시각 광장 내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장애인 인권 캠페인 부스를 비롯해 ‘베트남 문화 체험’, ‘수어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반려화분 만들기’ 등 여러 체험부스에서 많은 방문객이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누에 아트홀 제3전시실에서 열린 전시 ‘우리’에서는 장애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으며 이날 진행된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각자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57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도예, 테라코타, 천연염색, 퀼트 등 28점의 공예작품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담은 글, 시화, 사진 42작품, 31점의 민화, 수채화, 아크릴화, 유화, 판화 등이 전시되었다.

‘서로’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행사의 사회자로 나는 세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올 팀들을 호명하고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그곳에서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사람들의 표정과 손짓과 춤사위를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와 노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행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나는 잔뜩 긴장해 있었고 조금은 불안했다. 축제의 구성과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 보던 것들과 큰 차이 없는 익숙한 것들이었지만 나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언어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몰랐던 만큼 긴장감과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빠르게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 조금은 알아갈 수 있었고 또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지만 여름처럼 따듯했고 오후의 햇볕은 부드러웠다. 이날 무대 위에서 만났던 장애인들은 문화와 예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창작자였고 공연자였다. 20년 넘게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완주군 수어통역센터의 강지현 사무국장은 대학 동아리에서 수어를 배웠다고 했다. 지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모두 수어통역센터가 있지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라북도수어통역센터 한 곳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학시절 그는 농아인들과 1박 2일 엠티를 다녀왔는데 그들과 거의 아무런 실제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대학동아리에서 수어를 1년 반 배웠는데 막상 농아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곳곳에 수어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농아인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때 그 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수어를 하는 사람이 조금이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통역해 줘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수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떨까. 좀 더 불편함 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수어통역사가 되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수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많은 농아인과 불편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만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강지현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명료했다.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무슨 일이든 나에게 일을 주세요’라는 나의 마음속 외침에 화답해준 완주문화재단의 작은 일거리는 결국 나에게 ‘잘 모른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게 해주었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에는 어쩌면 수어를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다.



‘조건없음’과 함께한 순간들

“ 당신의 불 켜진 창가에서

김지영 (모두의 방학)

“이름을 찾고 싶어요.”

처음 시작은 이것밖에 없었다. 누군가의 집사람으로, 누구의 엄마로 10년을 꽉 채우고 보니 어디에도 내 이름이 없었다. 김춘수의 시 <꽃>처럼 나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되고 싶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엄마의 방학’ 활동이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다.

‘엄마의 방학’을 통해 마음에만 품고 있던, 터무니없어 보이던 상상들이 모두 이루어졌다. 궁금했던 책 속의 작가님들을 만났고, 배워보고 싶던 다양한 분야의 도구들에 도전했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공간에 작업실을 꾸미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처럼 ‘우리들의 해방일지’도 썼다. 양철 지붕에 떨어지던 빗소리와 재즈 피아노의 선율이 만들어 내던 낭만적인 가을밤도 누렸다. 그림책 전람회, 마음 그림 전시회 등 마음 챙김 활동들도 종횡무진 계속해 왔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시간 속에서 나는 막연한 내일에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삶의 소소한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믿게 되었다.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화를 내던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매년 눈을 반짝이며 온몸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료들 덕분이다. 그들이 내어준 곁에서 나도 비로소 듣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들의 고유한 이야기들은 고요히 내게로 와서 흘렀다. 물설던 이곳이 고향보다 좋아진 이유다.

완주에는 가지각색의 공동체, 활동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성과 공유회’를 통해 1년 동안의 활동들을 구경하다 보면 저절로 엄지척하기도 하고, 험난했던 과정들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에 모두가 격한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과 공유회’는 그 이름처럼 어떤 곳이 얼마만큼의 성공 스토리를 썼는지, 얼마나 특별한 주목을 받았는지 가늠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이 ‘다름’이기도, ‘비교’이기도 했다.

어떤 이는 대표로, 또 어떤 이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또 어떤 이는 예술가로 호명된다. 어떤 기관과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은 그때마다 다르다. 내 경우에도 내가 하는 활동은 그대로인데도 기관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되었다가, 기획자가 되었다가, 활동가가 되었다가, 이름은 달라졌다. 누군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이름이 생겼다. 기혼과 비혼, 청년과 비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자녀와 무자녀, 예술인과 생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장맘과 전업맘 등으로 손쉽게 구분하고 불렀다.

분명히 누군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지만, 언어에 갇혀버리는 것 같았다. 마치 엄마라는 이름만 강조될수록 엄마가 아닌 사람들과 경계가 그어지는 것처럼. 엄마의 방학이라는 이름이 대표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동료들의 이름이 희미해진 것처럼. 나는 마음대로 붙여진 이름 뒤에 가려진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엄마의 방학 동료들이 자기만의 심연을 가지고 오늘을 가꾸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쌓아가고 있는 오늘이 궁금했다.

노을이 지는 거리, 어떤 창에 전구가 켜진다. 누군가의 불 켜진 창에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맥주가 있을지도, 분주하게 차려지는 찌개가 있을지도, 고양이와 맞이하는 저녁이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는 일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 버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름과 역할로 구분된 누군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만날 가능성을 키우는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사람여행_발견클럽>은 문을 열었다.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이 만났다. 글 짓는 사람, 글 쓰는 사람, 피곤한 사람, 발이 넓은 사람, 티타늄 같은 사람, 5명이 모였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핀 새가 된 것 같다는 그는 일상 속 경이로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 18년 차 경력에도 자격 증명을 받는 프리랜서인 그는 불안함에 압도당하기보다 균형 있는 삶의 태도를 고민했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사니즘이 어려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는 좋아하는 일을 깎아내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좋아하는 일을 지켜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불편했지만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대신 자기만의 언어로 정돈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이름과 역할로 구분하기를 멈추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 다가왔다. 그저 풍문으로 듣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저 결과 한 줄로 가름하는 어떤 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으로, 선명한 동료로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 지역에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 날들이 있었다. 큰 도시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번쩍이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싶어 나를 부풀리는 때도 있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한 명 한 명이 풀어내는 고유한 언어들 발견하고 수집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슬아슬한 경계 사이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좋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정혜윤, 슬픈 세상의 기쁜 말)로 스며들었다.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각자의 단어들은 이미 정해놓은 옷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살아있는 단어로 재생되었다. 각자의 상황과 이름은 달랐지만, 고립된 채 각자도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막막함보다 우리가 서로의 곁을 찢다 보면 한 움큼의 온기일지라도 ‘좋은 동료’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지역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우리들, 우리라는 또 다른 연결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건없음’과 함께한 순간들

“ ‘내가 살던 고향은’

이성령 (오픈스튜디오 에이,알,티)

“외국에 산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가족, 동료, 친구가 있고 자신의 언어로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서 벗어나, 그물이 없는 곳에서 높은 외줄을 걷는 것과 같다.”

이방인, 외국인, 이민자, 이주민 등에 대한 단어를 떠올리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 한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한 번쯤 타향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깊게 다가오는 말은 없을 것이다.

수십 년의 시간을 이민자로 살았다. 자의로 이민을 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의 걸음은 낯설고 두려웠으며 다시 5살 꼬마로 돌아가 버린 기분이었다. 인종차별이 많이 없다고 알려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캐나다라 했지만, 이민 생활은 내가 꿈꾸던 생활과 아주 달랐다. 다른 언어와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지적받거나 소외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다름과 차이는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외로웠고 때때로 슬펐으며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리웠다.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으로 변해가는 생활과 성격은 많은 이민자 사이에서 늘 화두가 되는 어려움이자 극복해야 하는 과제였다. 우리는 김밥과 떡볶이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함께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그리웠고 “서른 즈음에” 노래를 함께 듣고 눈물을 흘릴 친구들을 그리워했다.

우울과 불안이 서서히 휩쓸어왔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미술치료사로 성장하고, 상담심리사가 되었다.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일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서 나는 나와 같은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 이민 1세로 힘들게 타향에서 살다가 이제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언어 소통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돕고, 부모님과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3세,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이민을 했지만, 문화적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힘썼다. 소수계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했다. 그러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고 나 또한 그중의 한 명이 되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만 2년이 되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본국 생활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 캐나다와 한국, 동양과 서양 사이 그 어딘가에 걸친 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주여성으로 오랜 시간 살았던 경험 때문인지 한국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이주여성의 삶에 늘 관심이 많았다.



한동안은 나도 이주민, 동양인, 그리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점에 놓인 나는 소수계층에 속해 있었다. 현재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잘하는 국적만 외국인인 한국인이 되어 다수계층에 속해 있다.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안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이런 나날 속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아니면 적응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 연구와 문헌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이주여성에 대해 알아가고 무언가를 함께 할 기회를 찾는 중에 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조건없음’ 모집 공고를 만나게 되었고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다. 완주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문화다양성 활동지원 ‘조건없음’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프로젝트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을 문화예술로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주여성들과 함께 문화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사람들과 사회 집단, 나아가 나라 간의 차이와 문화 간의 다양성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며 상호 교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다양성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미술치료사이자 심리상담사, 그리고 이주여성으로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연결되고 이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었다.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주여성들과 다양한 문화에 대해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실상은, 한국으로 돌아와 전주에서 생활하면서 완주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완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완주문화재단의 도움이 필요했고, 완주에서 이주여성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다문화공동체 보물섬 대표님의 지원도 필요했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작은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넓지 않다는 것 등 최근에서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중이다.

그들을 돕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가졌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 이주여성들은 이미 많이 바빴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친정을 챙겨야 했기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돌보는 일에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내기 쉽지 않았다. 돕고 싶은 마음보다 정작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주여성들과의 인터뷰 시간은 이주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주여성들에게 시급한 필요 중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 문화에 익숙한 자녀들과의 소통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가족 간의 소통이었다. 이런 소통은 언어적인 차이를 넘어,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문화를 소개하고, 조금은 어색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다른 문화를 가진 엄마를 통해 다양성에 대해 알아가는, 다름이 더 특별한 가치가 되는 소통이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동시에 서로 다른 경험과 문화를 이해하며, 엄마와 아이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내가 살던 고향은~”

프로그램 “내가 살던 고향은~”의 목표는 결혼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미술을 통해 자아와 문화를 표현하고, 엄마와 자녀들의 소통,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주여성의 자녀들은 엄마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등을 그림과 짧은 글로 담았다. 워크숍의 마지막 날에는 ‘작가의 밤’을 마련하여 이주여성들과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전시하고,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그림책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며, 살아온 세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소통과 창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 그림책을 활용한 소통의 기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이주한 여성들로, 그들의 자녀를 포함해 25명 내외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교육적인 형식을 벗어나 자연스러운 소통과 이해를 쌓아가기 위해 준비한 그림책 만들기는 이주여성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환영받았다. 엄마의 문화나 고향의 다름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엄마가 직접 제작한 고향에 대한 그림과 글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엄마의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 중 한 명인 이주여성은 아이들에게 고향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기 고향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과 아이들과 자기 고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가치 있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그림책으로 제작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재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마 사랑해요”라며 이주여성의 자녀가 자신의 소중한 감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한 생각, 호기심을 그림과 글로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적인 접근을 벗어나, 따뜻하고 유쾌한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한 연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에는 이주여성들의 가족과 지역주민들을 전시회에 초대하여 이주여성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고향,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존중받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통해 엄마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04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문화다양성 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 시설, 단체, 공동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실천 과제를 찾아보고, 공공 영역과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다양성 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업기간 2023. 11. ~ 12.

◆ 사업결과

		
운영횟수 7회	참여인원 118명	협력주체 22곳(명)

◆ 사업내용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라운드 테이블

- **운영기간** 2023.12.8.(금)~12.22(금)
- **장 소**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외 완주군 일원
- **운영횟수** 6회
- **참여인원** 81명(이주여성, 문화예술기관·시설 관계자, 장애인지원기관·시설 관계자, 사회적 경제 활동가, 청소년, 완주군민 등)
- **협 력** 문화예술기관시설네트워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군가족센터, 장애인문화예술네트워크,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화산골작은도서관
- **내 용** 문화다양성 특강 및 문화다양성 실천 방안 논의



· 세부운영내용

순	일시 및 장소	주제	참여자(인원)	세부 내용
1	12.8(금) 10:00~13:00 완주군 가족센터	이주	결혼이주여성, 완주군가족센터 관계자 등 (총 15명)	- [특강] 각 문화권마다 다른 머리스타일과 복장규제 등을 통해 알아보는 문화다양성 - [라운드 테이블]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방안 논의
2	12.11(월) 13:00~16:00 화산골 작은도서관	지역 간 격차	농·산촌 지역 주민, 귀촌인 등 (총 10명)	- [특강] 색과 고정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문화다양성 - [라운드 테이블] 농·산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다양성 실천 방안 논의
3	12.13(수) 10:00~13:00 완주 문화재단	접근성	문화예술 기관·시설·단체 관계자 등 (총 18명)	- [특강] 문화다양성과 스테레오타입의 이해 - [라운드 테이블] 누구에게나 열린 기관 운영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 논의
4	12.13(금) 10:00~13:00 완주 미디어센터	장애	장애인지원 기관·시설·단체 관계자 등 (총 11명)	- [특강]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질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이해 - [라운드 테이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 논의
5	12.13(금) 14:00~17:00 완주 경제센터	공공	사회적경제 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 (총 15명)	- [특강] 공동체 영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실천 사례 - [라운드 테이블] 공동체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실천 방법 논의
6	12.22(금) 14:00~17:00 한국 게임과학 고등학교	청소년	한국게임과학 고등학교 소셜미디어 개발과 (총 12명)	- [특강] 나의 선호와 불호를 통해 생각해 보는 문화다양성 - [라운드 테이블] 학교 안 문화다양성, 청소년 권리와 연결한 문화다양성 실천 방법 논의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선언문·실천 매뉴얼 제작

- 운영기간 2023.11.27(월)~12.24(금)
- 내용 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출된 문화다양성 이슈 및 실천 방안 정리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선언문·실천 매뉴얼 제작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공동선언

- 일시 2023.12.27.(수) 17:00~18:00
- 장소 삼례책마을 북카페
- 참여인원 31명(넬리넬리 흥흥, 놀푸른그룹홈, 되살림 공동체, 림보책방, 모두의방학,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물푸레 공동체, 스튜디오 에이알티, 완주문화재단, 완주미디어센터, 전스비주얼랩,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토닥토닥,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등)
- 내용 나의 문화다양성 실천 약속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공동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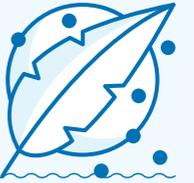
◆ 주요성과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분야 현장 활동가 및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화다양성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실천 선언문 제작
-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참여 주체 외에도 신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확장
- 참여자 중심의 문화다양성 선언문 제작 및 공동선언을 통해 지역 내 문화다양성 실천 공감대 확산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공동선언

“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 다름이 다양이 되고 당연이 되기 위한 한 걸음 -



완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섯 번의 만남을 통해 주민공동체, 단체, 관내 기관·시설에서 문화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완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다양으로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완주의 당연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을 여러분들과 시작하려 합니다.

완주의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함께해주세요!

완주의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름이 다양이 되고 당연이 되기 위한 한 걸음

다다당 선언문

- 선언1.** 우리는 나이, 성별, 출신지, 국적, 장애/비장애, 성적 지향 등과 상관없이 완주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 선언2.** 우리는 다양한 완주살이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 선언3.** 우리는 나와 다른 문화를 마주할 때 새롭게 다른 것을 배운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 선언4.**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완주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선언5.** 우리는 누구나 완주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언6.** 우리는 단 한 사람의 필요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 선언7.** 완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곧 완주의 문화가 됩니다.

☞ 다다당 선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완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다양으로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 전반에서 지킬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실천 방법 1.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 나와는 달라서, 내가 잘 몰라서, 내게 낯설다는 이유로 선을 긋거나 구별 짓지 않아요.
- 편견, 차별, 혐오의 언어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 눈에 보이는 특징들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쉽게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 다른 이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배운다는 태도를 가져요.
- 나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따라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 실천 방법 2.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문화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 정주민과 이주민의 상호 경혐 및 문화 존중, 세대별 가치관과 문화 상호 존중, 공동체의 접근권 고려 (장애, 질병 등 신체 및 정신적 조건),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요.
- 어린이·청소년의 공동체 내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공식 회의 마련, 공동체별 자치회의 구성인원 다양화 등

◆ 실천 방법 3. 지역사회와 함께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 지역 내 단체·기관·시설에서 제공하는 알림, 계시물, 문화서비스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표현들이 완주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지 점검해요.
- 어린이날 포스터에 실리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미지는 비혼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가정, 편부/편모 가정, 조부모 양육자 등을 배제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 지역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진행할 때 의도치 않은 배제와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 모집 문구에 '누구나 참여'를 명시하기, 현장 수어 통역사 배치하기 등
- 공공시설의 경우,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조적인 이유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일상 속 배리어프리 실천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요.
-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 빗면 마련, 발달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 문자 사용 (보완대체의사소통 또는 AAC언어) 등

“완주의 다름이 다양이 되고 당연이 되기 위한 한 걸음, 우리 함께 해요!”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과 함께 해주신 분들]

문화예술기관시설네트워크

구이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지구 누에, 삼례책마을,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완주문화의집, 이서문화의집,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문화재단, 완주미디어센터, 완주예총, 완주풍류학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장애인문화예술네트워크

늘푸른그룹홈, 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예수재활원, 은혜의동산,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주간보호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완주군가족센터

가와우치 히로미, 문지아, 아마디 파티마, 신지수, 양나경, 이선화, 이지현, 케테아니, 히라이 마사미, 한유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놀이교육·공예협동조합 놀터, 두배공간, 들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떡메마을, 창작극단 창연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김동혁, 남태인, 라원준, 서승원, 양현준, 오수복, 윤준기, 정성문, 황정욱

완주군민

김옥선, 김종임, 김현숙, 변돌매, 윤선주, 이수라, 이춘희, 임명화

다다당 운영팀

경희령, 신인혜, 정지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다당’과 함께한 순간들

“ 지금, 여기, 내 일상에서 출발하는 약속

-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름이 다양이 되고 당연이 되는 ‘다다당 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 -

경희령 (문화다양성 특강 강사, 미디어 교육자)

☞ 문화다양성은 신기루 같은 것?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문화다양성을 다르게 이해한다. 누군가는 복지 분야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초점을 맞춘다. 어르신 그룹에서는 문화다양성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점이 될 수 있고, 젊은 그룹에서는 ‘기회’와 ‘권한’에 대한 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각자 떠올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상은 각기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마련이다.

“문화다양성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문화다양성’은 유리에 굴절된 빛이 여러 색을 동시에 보여주는 프리즘과 같다.

딱 떨어지는 이름으로 설명하거나 단순화하여 몇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은 모호할 수 있다.
뜬구름 같다 느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은 포괄적 개념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작은 실천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문화다양성은...
알수록,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문화다양성’이 무어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어김없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온다. 내 생각에도 문화다양성은 명쾌하지 않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열 마디로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단어랄까.

나에게 문화다양성을 설명한다는 것은 내 전문 분야인 미디어 교육을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미디어 교육을 18년이나 해왔지만, 아직도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미디어’만 해도 어느 지점부터 어떻게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다. 더군다나 미디어는 등장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끝도 없이 확장하는 중이다. 어디 미디어뿐인가. 미디어 교육을 이해하려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해왔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디어 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다.

이렇듯 나에게 ‘문화다양성’도 설명을 요구받는 개념이지만 단순하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어려운 것이다.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분명 존재하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설명해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내게는 참으로 난해한 개념이 바로 ‘문화다양성’이었다.

☞ 일상 속에서 문화다양성 찾기

2023년 10월 중순, 가을의 한 가운데에서 완주의 문화다양성을 고민할 기회가 생겼다. 완주문화재단 정책 기획팀에서 몇 회기의 특강과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문화다양성 실천을 주제로 여러 그룹과 토의를 진행하고, 문화다양성 선언을 해보자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다.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수만큼 ‘문화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어떻게 모아낼지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일단,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화다양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언어가 없다고 느꼈다. 내가 이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떨어질 책임감과 무게에 짓눌릴 것이라 생각했다. 이미 바쁜 하반기에 이로 인해 소진될 에너지가 클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다.

미디어 교육으로 먹고사는 나에게 문화다양성은 ‘누구나 사회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공론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환경을 만드는 일’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내가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이 일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높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단순히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여러 사례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안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제안해 보는 과정이라 과연 내가 진행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문화다양성 활동은 사실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일방적인 방식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워크숍'의 개념이 더 크다. 다른 지역의 문화다양성 활동 사례들을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문화다양성 활동은 다른 문화 프로그램보다 더 일상적이고 참여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론 교육처럼 똑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각자의 경험과 일상 안에서 '문화다양성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표도 '타인에 대한, 다름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안을 받았을 당시,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내가 완주에서 문화다양성 특강을 한 번 해보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담당자의 한마디 때문이다. 담당자는 문화다양성 교육이라 생각하기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푸는 미디어 비평 특강으로 생각하라며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선생님이 원래 하던 것을 해주세요. 비판적 미디어 읽기 교육으로 미디어콘텐츠 속에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찾아보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걸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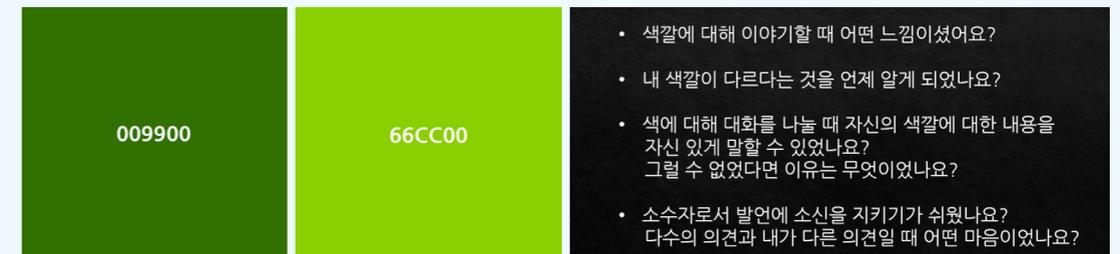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정답이었다. 내가 너무 어렵다고, 자신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개념과 활동이 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을 내 분야인 미디어 교육으로 풀겠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막연했다는 뜻이다. 담당자가 특강 준비에 참고하라며 전해준 문화다양성 안내서와 브로슈어를 열어보며, 새삼 이 문구가 와 닿았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문화다양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시나요?
- <똑똑똑, 문화다양성 두드리기> 브로슈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그래, 맞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문화다양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과 삶에서 출발하는 게 문화다양성이다. 미디어는 우리 삶을 특정한 관점에서 재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니, 일상에서 접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재료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얼마간의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진행자의 두려움과 고민을 골뎠 삼킨 채 완주의 문화다양성 특강과 공동체별 문화다양성 실천 라운드 테이블이 시작되었다.

☞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재미

첫 번째 특강에서 만난 공동체는 완주 화산골 작은도서관에 함께 모여 아크릴화를 그리는 물푸레 공동체 분들이었다. 모든 구성원이 나와 같은 여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일까, 일상 속 예술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신 덕분일까... 이 그룹에서 좋은 피드백을 보내주신 덕분에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다. 그림 그리는 취미로 만나 정기모임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물푸레 공동체 분들의 온기는 내게도 전달될 만큼 넉넉히 따뜻했다.



<헥스코드 색상표>

- 색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 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 색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색깔에 대한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소수자로서 발언에 소신을 지키기가 쉬웠나요? 다수의 의견과 내가 다른 의견일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내가 준비한 활동은 색깔에 대한 것이었다. 모두 동일한 초록색을 나누어 드리고, 딱 한 분만 조금 계열이 다른 초록색을 드렸다. 그것이 어떤 색깔인지 각자의 경험과 단상을 나누어 보면서 서로 가진 색이 어떤 색인지 추측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 다른 계열의 색을 가진 분이 조금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활동 후 진행 의도를 설명하고, 색깔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같은 색깔도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문화권에 따라 특정 색이 정치적인 측면을 대변하거나 특정 인종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물푸레 공동체에서는 문화다양성 실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자들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이다. 잘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색을 제시하고 두 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밴다이어그램을 통해 보여드렸다. '가운데 색은 대체 어떤 색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무척 재미있었다. 진행자인 나는 '알 수 없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색'이라고 명명했으나 물푸레 공동체 분들은 그림을 그리며 색을 다루는 분들이라서인지 예민하게 색을 관찰하고 표현해 주셨다. 아주 어두운 황토색, 미세한 보랏빛이 섞인 아이보리색 등 색을 묘사하는 언어와 관점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었다. 특히 한 분이 색깔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 보면 보라색이 더 잘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는 '유레카'를 외치고 싶을 만큼 기뻐했다. 마치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색깔을 보는 위치에 비유하여 이야기하신 것 같아 이와 같은 나의 해석을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하기도 했다.



<물푸레공동체 라운드테이블 - 다다당 선언 설명 중>



<색으로 풀어보는 문화다양성 실천>

색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한 우리는 넓게는 완주 지역 안에서 좁게는 화산면 안에서 어떤 실천들이 필요하고 가능할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파트가 있는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점, 그리고 시골 도로의 안전에 대한 점 등이 화두가 되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완주에서의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린 토의를 진행했다.

☞ 완주의 삶이 역동하는 문화다양성 실천안

물푸레 공동체에서의 두 번의 활동을 통해 경험에서 출발한 문화다양성은 걱정할 만큼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이어지는 특강과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에 맞추어 큰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혼자 힘으로 가능했던 일은 아니다.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담당자 신인혜 선생님과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코디네이터 정지원 선생님, 그리고 나. 우리는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꾸준히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두 달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셋은 문화다양성 실천안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전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문화다양성 실천안을 논의하는 것이 공동체에 자칫 부담스러운 일이 되거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실천 논의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테이블을 이끌어가기 위한 가이드가 우리에게 필요했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사전 논의를 거쳤지만 실제 라운드 테이블의 진행은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다. 공동체 구성원들에 따라서 이해의 범위나 이야기를 나누는 깊이가 달라 토의를 진행하며 당황할 때도 있었다. 완주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해 폭넓은 공감과 포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그룹에서는 의외로 선을 긋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뻔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그룹에서는 오히려 의미 있는 맥락의 문장이 도출되기도 했다. 어떤 때에는 '사회적 소수자 지원'과 '역차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기도 했고, '문화다양성'을 자신의 일상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혜적인 시각에 머물러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런 변수들을 각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테이블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무척 당황스럽고 곤란했다. 대관절 문화다양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진땀을 흘려야 한단 말인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나는 '문화다양성'이 꼭 지키기 어려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것 같다고 느꼈다. 동시에 착잡한 심경이 되어 사람들을 '문화다양성 감수성 100점'이라는 높은 잣대 위에 얹어두고 판단하고 재면서 고개를 가로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진행자의 입장에서 곤란함을 느낄 때마다 이런 양가적인 마음이 번갈아 올라왔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문화다양성'이 정말로 어려운 게 맞구나, 작지만 큰 한 걸음이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일까, 혼자서 떼는 한 걸음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구나... 라고 말이다. 이 생각을 확신하게 된 것은 거의 마지막 순번의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될 때였다. 유독 상반된 다양한 반응이 나왔던 모임이었는데, 나는 참여자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의를 마무리했다.

“문화다양성이 도무지 뭘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자 시도하는 것, 그렇게 완주의 문화다양성 실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매회 특강과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며 우리 셋은 토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회의가 어느새 익숙해졌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나는 공동체 참여자들이 보이는 반응에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매번 다른 모양의 벽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크게 지치지 않고 진행자로서의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함께 과정을 꾸러가며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 준 이들에게 지지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다당 선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배울 것이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느꼈다.

완주의 문화다양성 실천안은 이렇게 완주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다른 여러 사람의 삶 안에서 서로 드러내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불편해하거나 알쏭달쏭해하는 역동의 과정에서 탄생했다. 더불어 우리 셋의 고군분투와 짝나 나는 길고 긴 회의의 시간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단어 하나, 예시 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우리는 '다름이 다양이 되고 당연이 되기 위한' 출발점에 설 수 있었다.

완주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을 마무리하며 준비한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선언'은 정말 어렵고 큰 한 걸음이다. 그리고 그 어렵고 큰 한 걸음에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 공동체, 지역 사회 차원의 실천안을 제시해 보았다. 때론 절룩일 수도, 때론 너무너무 느릴 수도, 때론 종종걸음일 수도 있다. 사실 어떤 모양새의 걸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서로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모두와 함께, 조금 더 마음을 내어, 완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걸어보려고 한다. 그 걸음이 나의 삶이라면, 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번 기회에 용기 내어 한 걸음 동참해 보면 어떨까.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05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완주문화다양성 리뷰 '다양성N'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정책에 맞춘 지역특화 사업으로, 책을 통해 주민을 만나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출판사, 마을책방, 공유공간 등과 연계하여 문화다양성 도서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화다양성 주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서를 열람·대여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3. 5. ~ 12.

◆ 사업결과


운영횟수
55 회


참여인원
10,888 명


협력주체
34 곳(명)

◆ 사업내용

'소수다의 서재' 개별간담회

- 운영기간 2023.4~5
- 장 소 완주군 일원
- 참여대상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출판사, 마을책방, 공유공간 관계자
- 운영횟수 12회
- 참여인원 35명
- 협 력 거리출판사, 경천애인작은도서관, 기차길작은도서관, 림보책방, 모악작은도서관, 무지개작은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 엄마의방학,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용꿈작은도서관, 플리커책방 소양고택점, 화산골작은도서관
- 내 용 공간별 문화다양성 도서 큐레이션 전시 기획,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협의

· 세부운영내용

순	일시	협력주체	세부 내용
1	4.27(목) 13:30 ~15:00	엄마의 방학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돌봄 노동·경력단절 여성의 자기 돌봄에 대한 논의 확장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젠더(여성) · 프로그램 : 경력단절 및 돌봄 공동체 추천 도서 전시, 작가와의 대화(북토크)
2	4.27(목) 15:30 ~17:30	림보 책방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연령대가 높은 선주민, 귀촌한 주민들의 웰다잉에 대한 관심 확대 ·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과 같이 죽음을 마주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죽음·웰다잉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
3	5.3(수) 10:00 ~12:00	용꿈 작은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장애를 '부족'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주제 : 장애 - 프로그램 : 그림책 전시, 장애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
4	5.3(수) 14:00 ~15:30	화산골 작은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 및 관심 분야 ·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해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음 · 이주민과 선주민의 단절 및 문화차이의 심화 ·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주민들의 상호교류 기회 마련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이주 · 프로그램 운영 : 도서 전시,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5	5.3(수) 16:30 ~18:00	기차길 작은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 등으로 인해 지역 내 환경에 대한 관심 높음 ·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환경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어린이(유아) 대상 환경 주제 책놀이 프로그램

순	일시	협력주체	세부 내용
6	5.4(목) 10:00 ~11:30	배꽃들 작은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보호 실천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높음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환경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제로 웨이스트 특강
7	5.4(목) 14:00 ~15:00	완주군립 중앙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반려견 문화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동물권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생각해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동물권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동물권 관련 체험 프로그램
8	5.8(월) 16:00 ~17:30	모악 작은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농사를 짓는 주민이 많은 만큼 토종작물에 대한 관심 높음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생태(종다양성)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토종씨앗·작물 교육 프로그램
9	5.9(화) 09:30 ~10:30	경천애인 작은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장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전통문화(민화)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민화 체험 프로그램
10	5.9(화) 11:00 ~12:30	거리 출판사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연령별, 세대별로 결혼 이후 달라지는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음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여성(결혼)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토크·체험 프로그램

순	일시	협력주체	세부 내용
11	5.10(수) 11:00 ~12:30	플리커 책방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소양의 특성상 환경에 대한 관심 높음 ·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환경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리사이클링 특강
12	5.10(수) 14:00 ~16:00	무지개 작은 도서관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관심 분야 · 관광객이 늘어나고, 개발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자연보호, 생태보호를 위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필요 - 주제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제 : 환경 · 프로그램 : 도서 전시 및 환경보호 체험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세계'

◆ 문화다양성 도서 전시

- 운영기간: 2023.5.2.(화)~6.21.(수) ※ 공간별 운영 기간 상이
- 장 소: 거리출판사, 경천애인작은도서관, 기차길작은도서관, 넬리넬리 흥흥, 덩가딩가, 무지개작은도서관, 모악작은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용꿈작은도서관, 플리커책방, 화산면행정복지센터
- 전시 프로그램: 12개
- 전시 도서 수: 320권
- 관람인원: 5,810명
- 협 력: 소수다의 서재 참여공간 12곳, 경천면주민자치위원회, 넬리넬리 흥흥, 모모씨마을
- 내 용: 지역 및 공간별 이슈를 반영한 문화다양성 도서 전시
- 주 제: 생애주기(결혼, 죽음), 생태(동물권, 종 다양성, 반려식물), 이주민, 장애, 전통문화, 젠더, 환경(탄소중립, 제로 웨이스트) 등
- 세부운영내용

순	협력 주체	기간 (운영일 수)	장소	주제	전시내용	전시 내용
1	거리 출판사	5.21(일)~6.10(토) (17일)	경천면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실, 거리출판사	젠더· 생애주기 (결혼)	· 전시명: 1+1=? · 내 용: 결혼 이후 여성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 전시 · 도서 수: 10권	340명 (일평균 20명)
2	경천애인 작은 도서관	5.20(토)~5.26(금) (5일)	경천애인 작은도서관	전통 문화	· 전시명: 복을 부르는 전통민화 · 내 용: 전통미술 관련 도서와 주민 작가가 그린 민화 전시 · 도서 수: 12권 · 민화전시: 6작품	50명 (일평균 10명)
3	기차길 작은 도서관	5.22(월)~5.26(금) (5일)	기차길 작은도서관	환경 (제로 웨이스트)	· 전시명: 건강한 지구환경에서 건강한 어린이를 · 내 용: 환경을 주제로 한 도서 전시, 포토존 운영 · 도서 수: 30권	275명 (일평균 55명)

순	협력 주체	기간 (운영일 수)	장소	주제	전시내용	전시 내용
4	림보책방	5.22(일)~6.21(수) (23일)	넬리넬리 흥흥	생애 주기 (죽음)	· 전시명: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 · 내 용: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은 책 및 2022 소수다의 서재 도서 전시 · 도서 수: 50권	460명 (일평균 20명)
5	모악 작은 도서관	5.21(일)~5.27(토) (5일)	모악 작은 도서관	생태 (종 다양성)	· 전시명: 생명을 살리는 토종씨앗과 토종식물 · 내 용: 토종씨앗 및 식물 관련 도서 전시 · 도서 수: 30권	85명 (일평균 17명)
6	무지개 작은 도서관	5.20(토)~5.26(금) (5일)	무지개 작은 도서관	환경 (탄소 중립)	· 전시명: 탄소 Zero 가치 더하기 · 내 용: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관련 도서 전시 · 도서 수: 20권	200명 (일평균 40명)
7	배꽃뜰 작은 도서관	5.22(월)~5.26(금) (5일)	배꽃뜰 작은 도서관	환경 (제로 웨이스트)	· 전시명: 일회용품 없이도 충분히 편리해요 · 내 용: 환경보호 및 제로 웨이스트 관련 도서 전시 · 도서 수: 40권	125명 (일평균 25명)
8	엄마의 방학	5.21(토)~5.31(수) (11일)	덩가딩가	젠더 (돌봄)	· 전시명: 살아갈 결심 · 내 용: 결혼 이후 경력단절과 돌봄노동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도서 전시 · 도서 수: 50권	55명 (일평균 5명)
9	완주 군립중앙 도서관	5.2.(화)~5.31.(수) (23일)	완주군립 중앙 도서관	생태 (동물권)	· 전시명: 반려견과 함께하는 도서관 책 소풍 · 내 용: 동물과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과 그림책 원화 전시 · 도서 수: 14권 · 원화전시: 20작품	3,450명 (일평균 150명)

순	협력 주체	기간 (운영일 수)	장소	주제	전시내용	전시 내용
10	용꿈 작은 도서관	5.22(월)~5.26(금) (5일)	용꿈 작은 도서관	장애	· 전시명 : 모두 다 꽃이야 · 내 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 전시 · 도서 수 : 20권	50명 (일평균 30명)
11	플리커 책방	5.20(토)~5.27(토) (7일)	플리커 책방	생태 (식물)	· 전시명 : 식물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 내 용 :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전시 · 도서 수 : 20권	560명 (일평균 80명)
12	화산골 작은 도서관	5.22(월)~5.31(수) (8일)	화산면 행정 복지센터 2층 로비	이주민	· 전시명 : 이주민 이야기, 화산골 살기 어때요? · 내 용 : 귀촌, 이주 등에 관한 도서 전시 · 도서 수 : 24권	160명 (일평균 20명)

◆ 문화다양성 도서 연계 프로그램

- 운영기간 2023.5.20.(토)~5.27.(토)
- 장 소 경천애인작은도서관, 기차길작은도서관, 널리널리 흥흥, 덩가딩가, 무지개작은도서관, 모약작은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용꿈작은도서관, 플리커책방, 호암가든, 화산골작은도서관 등 완주군 일원
- 운영횟수 29회
- 참여인원 432명
- 협 력 소수다의 서재 참여공간 12곳, 경천면주민자치위원회, 널리널리 흥흥, 만큼, 모모씨마을, 버즈더퍼즈, 한사랑
- 내 용 지역 및 공간별 이슈를 반영한 문화다양성 주제 선정 및 완주군민 대상 문화다양성 체험·교육·특강 등 운영
- 주 제 생애주기(결혼, 죽음), 생태(동물권, 종 다양성, 반려식물), 이주민, 장애, 전통문화, 젠더, 환경(탄소중립, 제로 웨이스트) 등

- 세부운영내용

순	협력 주체	일시	장소	유형	내용	참여 대상	참여 인원
1	거리 출판사	5.26(금) 10:00~15:00	호암가든 일대	토크	세대별로 다른 결혼 전과 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포토북 만들기	완주군민	15명
2	경천 애인 작은 도서관	5.20(토) 10:00~12:00	경천애인 작은도서관	체험	민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민화 그려보기	어린이 청소년	13명
3		5.26(금) 10:00~12:00	경천애인 작은도서관	체험	민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민화 그려보기	성인	12명
4	기차길 작은 도서관	5.22(월) 10:00~11:00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돌봄교실	체험	그림책 <할머니의 용궁여행>을 함께 읽고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유아 (6~7세)	16명
5		5.22(월) 10:00~11:00	기차길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체험	그림책 <누가 스탠리를 삼켰을까?>를 읽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찾아보기	유아 (4~5세)	13명



순	협력주체	일시	장소	유형	내용	참여대상	참여인원	
6	기차길 작은도서관	5.23(화) 10:00 ~11:00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돌봄교실	체험	그림책 <할머니의 용궁여행>을 함께 읽고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유아 (6~7세)	15명	
7		5.23(화) 10:00 ~11:00	기차길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체험	그림책 <누가 스탠리를 삼켰을까?>를 읽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알아보기	유아 (4~5세)	12명	
8		5.25(목) 10:30 ~11:30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돌봄교실	체험	그림책 <할머니의 용궁여행>을 함께 읽고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유아 (6~7세)	14명	
9		5.25(목) 10:30 ~11:30	기차길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체험	그림책 <누가 스탠리를 삼켰을까?>를 읽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알아보기	유아 (4~5세)	11명	
10		5.26(금) 10:00 ~11:00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돌봄교실	체험	그림책 <할머니의 용궁여행>을 함께 읽고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유아 (6~7세)	12명	
11		5.26(금) 10:00 ~11:00	기차길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체험	그림책 <할머니의 용궁여행>을 함께 읽고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유아 (6~7세)	12명	
12		림보 책방	5.27(토) 12:00 ~14:00	넬리넬리 흥흥	체험	나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기기	완주군민	14명
13			5.27(토) 15:00 ~17:00	넬리넬리 흥흥	토크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 나누기	완주군민	13명
14		모악 작은도서관	5.22(월) 10:00 ~12:00	모악 작은도서관	교육	기후위기와 우리 농업의 미래	완주군민	10명

순	협력주체	일시	장소	유형	내용	참여대상	참여인원
15	모악 작은도서관	5.23(화) 10:00 ~12:00	모악 작은도서관	교육	토종씨앗 및 작물에 대한 이해	완주군민	10명
16		5.24(수) 10:00 ~12:00	모악 작은도서관	교육	토종씨앗 및 토종작물 함께 키우기	완주군민	14명
17	무지개 작은도서관	5.23(화) 18:30 ~20:30	무지개 작은도서관	교육	소라껍질로 나만의 화분을 만들고 다육식물 심기	청소년	19명
18		5.24(수) 18:30 ~20:30	무지개 작은도서관, 소양천 일대	교육	소양천변 플로깅, 우유곽을 이용한 새집 만들기	청소년	22명
19		5.25(목) 18:30 ~20:30	무지개 작은도서관	교육	탄소중립 생활교육	청소년	19명
20	배꽃뜰 작은도서관	5.26(금) 10:00 ~12:00	배꽃뜰 작은도서관	특강	탄소중립 이해 및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	완주군민	12명
21		5.26(금) 19:00 ~21:00	배꽃뜰 작은도서관	특강	탄소중립 이해 및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	완주군민	14명
22	엄마의 방학	5.26(금) 10:00 ~13:00	딩가딩가	특강	<우리는 마침내 같은 문장에서 만난다> 강윤미 작가와의 북 토크	완주군민	15명
23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5.20(토) 13:00 ~17:00	어울림광장	체험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캐리커처 그리기	가족과 반려견	29명

순	협력주체	일시	장소	유형	내용	참여대상	참여인원
24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5.20(토) 14:00 ~16:00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	특강	그림책 <라이카는 말했다> 이민희 작가와의 만남	초등 저학년	19명
25		5.23(화) 16:00 ~18:00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	체험	강아지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 강아지 그림책을 읽고 책 놀이 활동하기	초등 저학년	12명
26	용꿈 작은도서관	5.25(목) 14:00 ~16:00	용꿈 작은도서관	체험	다름의 조화를 이해하는 나만의 꽃 피우기	장애인	25명
27	플리커 책방	5.21(일) 13:30 ~15:30	플리커책방	특강	반려식물 문화에 대한 이해, 와인병 리사이클링 화분을 만들어 반려식물 심어보기	완주군민	12명
28	화산골 작은도서관	5.22(월) 10:00 ~12:00	화산골 작은도서관	토크	토박이와 이주민의 생각을 나눠보는 스몰 토크	완주군민	14명
29		5.26(금) 10:00 ~12:00	화산골 작은도서관	체험	타국의 음식문화와 화산의 음식문화 체험하기	완주군민	14명

◆ 소수다의 서재 네트워크 모임

- 운영기간 2023.7~11
- 장 소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여대상 소수다의 서재 참여 공간 12곳
- 운영횟수 2회
- 참여인원 21명
- 협 력 거리출판사, 경천애인작은도서관, 기차길작은도서관, 림보책방, 모약작은도서관, 무지개작은도서관, 배꽃뜰작은도서관, 엄마의방학,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용꿈작은도서관, 플리커책방 소양고택점, 화산골작은도서관
- 내 용 소수다의 서재 상시 운영 방안 논의, 2023 소수다의 서재 가이드북 제작
- 세부운영내용

순	일시	내용	참여인원
1	7.17(월) 10:00~12:00	- 소수다의 서재 공간별 운영 결과공유 및 상시 운영 방안 논의 - 소수다의 서재 가이드북 기획	11명
2	11.14(월) 14:00~16:00	- 2023년 활동 평가 및 2024년 운영 방향 제안	10명

◆ 소수다의 서재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가이드북 제작 : 1종(PDF 및 인쇄본)
- 내 용 : 2023 소수다의 서재 공간별 문화다양성 도서 리스트 및 추천 도서 소개, 도서 대여·열람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배포방법

오프라인 배포

소수다의 서재 12곳 및 지역 내 문화예술공간, arte 라이브러리 도서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라인(PDF) 배포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arte 라이브러리 웹사이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소수다의 서재 상시 운영

- 운영기간 2023.7~11

- 장 소 소수다의 서재 참여 공간 12곳

- 이용인원 4,590명

- 공간별 세부 운영 내용

순	공간명	주제	운영 방법	비고
1	겨리출판사	젠더	도서 대여 및 열람	사전문의 후 방문
2	경천애인작은도서관	전통문화	도서 대여 및 열람	
3	기차길작은도서관	생태, 환경	도서 대여 및 열람	
4	딩가딩가	젠더	도서 대여 및 열람	사전 예약 필수
5	림보책방	생애주기	도서 열람	
6	무지개작은도서관	생태, 환경	도서 대여	사전문의 후 방문
7	모악작은도서관	종다양성	도서 대여 및 열람	
8	배꽃뜰작은도서관	생태, 환경	도서 대여 및 열람	
9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동물권	도서 대여 및 열람	
10	용꿈작은도서관	장애	도서 대여 및 열람	
11	플리커책방	반려문화	도서 열람	사전 예약 필수
12	화산골작은도서관	이주민	도서 대여 및 열람	

◆ 주요성과

- 지역별 신규 거점 공간 발굴을 통한 문화다양성 활동 주체 확대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후에도 '소수다의 서재' 상시 운영 추진, 참여 공간들의 지역 내 문화다양성 거점으로서 역할 확장

- 소수다의 서재 통합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지역별, 공간별로 이루어지던 '소수다의 서재'를 연결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완주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기 마련



‘조건없음’과 함께한 순간들

“ 1+1=? 결혼 그 이후,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 2023 문화다양성 주간행사_소수다의 서재 in 거리출판사

송은숙 (거리출판사)

지난 5월 25일, 2023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로 결혼, 가족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읽으며 살아온 삶의 이야기, 결혼에 관한 수다를 즐겁게 나누었다. 결혼으로 인해 달라지는 많은 것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압축해 이야기 보따리를 한껏 풀어놓은 어르신들... 50~80대 주민 열 명이 평소에는 쉬 풀어놓을 일 없던 서로의 이야기를, 웃다가도 가슴 먹먹한 기분으로 나누는 사이에 금세 한나절이 흘렀다.

“사우동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는 큰 동네라는디로 스물한 살에 시집을 갔어. 중매 반, 연애 반으로. 스물세 살에 첫 애를 낳고 여덟을 낳아서 하나 죽고 다 잘 키웠어.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해서 고생했는디, 지난 토요일에 애들이 90 잔치를 해줘서 잘 먹었어. 손주가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됐지. 젊어서 살 적에는 애들 키운다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

왕언니인 90세 박종옥 어르신의 말씀이다.

“열아홉에 결혼해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 와서 봉개 신랑 뒤통수는 이렇게 나오고 실망했지. 그때는 애들 많이 낳지, 밤에까지 농사 일허지, 뭘 생각이 있어. 신랑은 27살, 나랑 9년 차이여. 결혼사진 보면 시상에 나는 애기 같어. 일만, 일만 뉘지게 형게 오늘날까지 뼈따구 아퍼 죽었어. 그래도 애들 키울 때가 재미있어. 지 새끼는 누구더니 다 이쁘지. 언제 커서 초등학교 갈랑가 했는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이제는 같이 늙어.”

이길례(81세) 어르신의 구수한 말씀 중간중간에는 웃음이 계속 터졌다.

봉동에서 용복으로 스물두 살에 시집온 서화일(84세) 어르신은 시집오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셨다.

“시집간다고 차를 타고 오는데 산만, 산만 보이고 첩첩산중이여. 시할머니가 계셨는디, 편찮아 대소변을 못 가리면 치우고 사느라 세월이 가버리더라고. 머스매 셋 낳고 딸을 하나 두고, 또 딸을 더 낳을라고 낳게 고것도 머스매네. 다섯 낳게 노상 배불러 산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삼 농사를 김제니, 고창이니 멀리 가서 지었어. 그때 천식이 걸려서 지금도 고생해. 영감은 아퍼서 세상 뜨고, 이제 내 세상 사는 거여.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제 인생 사는 거여.”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길례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나는 결혼하고 싶어. 내가 하도 힘들게 살았으니 남자로 태어나서 각시한테 잘하고 싶어.”



힘든 시절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려주시는 어르신들, 그 유쾌한 수다에 가슴이 트인 기분이랄까. ‘1+1=?’이라는 표현처럼 저마다의 삶에서 결혼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유쾌한 수다를 통해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실 조금 급한 일정으로 준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였다.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주제를 정하고, 책을 주문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척척 진행된 것은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며 힘을 모아준 ‘이웃’ 덕분이다.

행사를 마치고 나니 ‘아, 하길 잘했구나’ 싶었다. 힘든 시절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려주시는 어르신들의 유쾌한 수다에 가슴이 탁 트인 기분이랄까. ‘1+1=?’이라는 표현처럼 저마다의 삶에서 결혼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쩌면 출판사라는 공간은 조금은 닫힌 공간이다. 저자나 독자 등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을 주로 만난다. 이번 소수다의 서재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수다의 서재에서 함께 읽은 결혼에 관한 그림책의 열람과 대여가 그 첫걸음이 될 듯하다. 책을 만드는 일이 결국 세상,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이니 어쩌면 한참 늦은 고민인지도 모르겠다. ‘2023 소수다의 서재’는 ‘앞으로 세상과, 사람과 어떤 책을 통해 어떤 공간에서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물음표 하나를 ‘기꺼이’ 꺼안은 시간이었다.



완주문화다양성 리뷰 '다양성N'

완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다양성 활동의 개인적·지역적 차원의 의미와 변화를 아카이빙하고, 사업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 내 문화다양성 활동이 연결·확대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사업기간 2023. 5. ~ 12.

◆ 사업결과

운영횟수
50 회

참여인원
1,120 명

협력주체
43 곳(명)

제작 건수
29 건

배포(조회) 수
44,576 회

◆ 사업내용

완주문화다양성 사례공유회

- 프로그램명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 일 시 2023.12.27(수) 12:00~17:00
- 장 소 삼례책마을 북카페
- 참여대상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참여 주체 및 완주군민
- 운영횟수 1회
- 참여인원 55명
- 협력 넬리넬리 흥흥, 늘푸른그룹홈, 오픈스튜디오 에이알티, 림보책방, 모두의방학,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물푸레 공동체,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배꽃뜰작은도서관, 삼례문화예술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완주미디어센터, 전스비주얼랩, 토닥토닥,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 내 용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결과공유 전시, 세부 프로그램별 사례 발표, 문화다양성 활동 성과 및 의미 회고 등

· 세부운영내용

순	시간	프로그램 및 내용	진행자/발제(발표)자
1	13:00 ~13:30	- [행사안내]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및 사례공유회 안내 - [자기소개] 참석자 자기소개	완주문화재단
2	13:30 ~14:00	- [사례발표 1]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사례발표 및 활동 회고	홍미진(림보책방) 이은정(배꽃뜰작은도서관) 이경선(미디어교육 교사) 물푸레, 장애문화예술팀
3	14:10 ~14:40	- [사례발표 2]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 사례발표 및 활동 회고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문지아, 우은성(참여자)
4	14:40 ~15:10	- [사례발표 3]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단 '청소년 소수다' 사례 발표 및 활동 회고	이명환(완주미디어센터) 홍다인(미디어교육 교사) 정성문, 라원준 외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5	15:20 ~16:00	- [사례발표 4] 문화다양성 활동지원 '조건없음' 사례발표 및 활동 회고	장미경(넬리넬리 흥흥) 김화순(늘푸른그룹홈) 이성령(오픈스튜디오 에이,알,티) 김지영(모두의방학) 이선미(만들협동조합) 서재화(토닥토닥)
6	16:10 ~16:40	- [사례발표 5] 문화다양성 활동 아카이브,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사례발표 및 활동 회고	강소은(완두콩협동조합) 전별(전스비주얼랩) 경희령(미디어활동가)
7	16:40 ~17:00	- 참석자 자유 네트워킹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 운영기간 2023.6~12
- 장 소 완주군 일원
- 참여대상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참여 주체 및 완주군민
- 운영횟수 50회
- 참여인원 1,120명
- 협 력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전스비주얼랩, 문화다양성 사업 참여 주체 등
- 내 용 완주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이트 구축,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프로그램별 기록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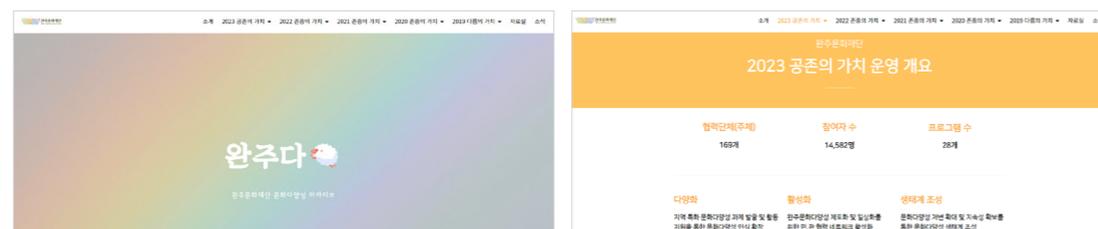
· 세부운영내용

◆ 완주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이트

- 사이트명 사이트명 : 완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완주다양'
- 내 용 2019~2023 완주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아카이브 사이트 구축
- 사이트주소 <https://wanjudiversity.creatorlink.net/>
- 사이트구성



순	메뉴	내용
1	소개	문화다양성 및 완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활동 소개
2	2023 공존의 가치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공존의 가치'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
3	2022 존중의 가치	2022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존중의 가치'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
4	2021 존중의 가치	2021 무지개다리사업 '존중의 가치'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
5	2020 존중의 가치	2020 무지개다리사업 '존중의 가치'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
6	2019 다름의 가치	2019 무지개다리사업 '다름의 가치' 사업개요 및 추진결과
7	자료실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발간 자료 등
8	소식	언론보도 등



◆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활동 기록 및 배포

- 운영기간 2023.5~12
- 장 소 완주군 일원
- 참여대상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협력 주체 및 프로그램 참여자
- 제작건수 11건
- 참여인원 11명
- 내 용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기록원고 작성 및 온라인 배포
- 활동 기록 내용



순	사업명	기록자	내용
1	소수다의 서재	송은숙 (겨리출판사)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 1+1=?' 운영 후기
2	청소년 소수다	이정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너랑 나랑 영화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가깝고도 낯선 이야기들
3	청소년 소수다	오준서 (삼우중학교)	- '너랑 나랑 영화제작' 프로그램 참여 후기
4	청소년 소수다	홍다인 (미디어교육 교사)	- '완주 도보 탐험 프로젝트'로 만난 이주 청소년들의 완주 이야기
5	점점이면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의 의미와 참여자들의 변화
6	점점이면	문지아 (이주여성)	-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참여 후기
7	조건없음	이성령 (스튜디오 에이, 알, 티)	- 이주여성과 함께 나눈 고향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운영 후기
8	조건없음	김지영 (모두의 방학)	-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9	그림사전	변돌매 (물푸레)	-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참여 후기
10	다다당	경희령 (미디어 활동가)	-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제작기
11	공유회	조은지 (프리랜서 작가)	-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사례공유회 현장스케치

- 배포 사이트 완주문화재단 블로그

◆ 문화다양성 사례 콘텐츠 제작·배포

- 운영기간 2023.5~12
- 장 소 완주군 일원
- 참여대상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협력 주체 및 프로그램 참여자
- 제작건수 7건
- 참여인원 72명
- 진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내용 지역 내 문화다양성 활동 사례 콘텐츠 제작 및 마을소식지 완두콩,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연재
- 마을소식지 완두콩 연재 내용



순	월별호수	제목	내용
1	6월호	마침내 같은 곳에서 만난 엄마들의 '살아갈 결심'	- 타인을 돌보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 돌봄'을 결심한 엄마들의 이야기
2	7월호	장애인에 대한 편견 딛고 어엿한 예술인으로 성장	- '완주문화예술학교'로 활동 중인 예술재활원 농악단 7인. 차별받기 쉬운 현실 속에서도 편견을 딛고 진정한 예술인으로 거듭난 이들의 이야기
3	8월호	차별과 고민 문화다양성 영화에 담아요	- 문화다양성이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청소년들이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갈등', '청소년 이동권' 문제를 영화로 만드는 과정
4	9월호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 환경보호 실천가 '돌맹이'의 제로웨이스트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과정, 그리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유용한 TIP 알아보기
5	10월호	인생 중반기 너머 그림을 만나고 색채를 더하다	- 화산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그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물푸레 공동체 회원들의 창작, 전시, 봉사 이야기
6	11월호	장애문화예술인 작품 "우리 함께 즐겨요"	- 2023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의 개막식, 문화제, 전시 현장 스케치
7	12월호	문화다양성의 점과 점이 만나 면을 이룬다	-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을 통해 활동가 8명이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만난 이야기

- 배포 사이트 완주문화재단 블로그

◆ 문화다양성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 운영기간 2023.5~12
- 장 소 완주군 일원
- 참여대상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협력 주체 및 프로그램 참여자
- 제작건수 14건
- 참여인원 993명
- 진행 전스비주얼랩
- 내용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존중의 가치' 프로그램별 기록영상 제작 및 온라인 배포
- 영상 제작 내용



순	사업명	세부 프로그램	내용
1	소수다의 서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in 완주'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 12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도서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현장 스케치
2	청소년 소수다	완주 도보 탐험 프로젝트 '걸다보면'	- 학업으로 인해 이주한 청소년들이 '걸기'를 통해 완주를 알아가고 이를 솟품으로 제작하는 과정 스케치
3		너랑 나랑 영화제작 프로그램	-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 청소년 이동권 문제를 다룬 이서면 청소년들의 문화다양성 단편영화 제작 과정 스케치
4	그림사전	주민 그림 동아리	-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에서 지역주민의 모습을 담은 물푸레 회원들의 작품 소개 및 제작 과정 인터뷰
5		장애문화예술인	-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에 참여한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소개 및 참여 후기
6	점점이면	점점이면	-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 진행 과정 및 사업에 참여한 멘토, 활동가 인터뷰
7	조건없음	다시, 발견 : 내가 살던 고향은	- 이주여성들과 함께 한 그림책 제작과정, 프로그램 운영 단체와 참여 여성들의 이야기
8		우리 지역 가꾸미 원정대	- 환경보호와 실천을 주제로 만난 공동체 활동가들과 지역 시니어 세대의 활동 후기
9		발견클럽	-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찾기와 연결의 과정 스케치

순	사업명	세부 프로그램	내용
10	조건없음	숲속의 음악가족	- 화산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가족의 다양성, 관계의 다양성 탐색 과정 스케치
11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을 위한 대화를 고민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12		토닥토닥 프로젝트	- 감정의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우리 함께' 공연 현장 스케치
1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	- 문화예술인으로써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공연·전시 현장 및 작가와의 대화
14	다다당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 선언' 및 일상 속 문화다양성 실천 방법 소개

- 배포 사이트 완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 주요성과

- 사업참여자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을 기록함으로써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활동의 의미와 변화 도출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사례 및 활동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 2019년부터 진행된 완주의 문화다양성 활동 성과 및 관련 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완주문화다양성 정보 제공
-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사례공유회를 통해 지역 내 문화다양성 활동을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활동 주체 간 교류 지원

‘다양성N’과 함께한 순간들

“ 다양한 다름을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 ”

조은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 삼례책마을 북카페가 북적거렸다.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이 이루어 온 활동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열렸기 때문이다. 일곱 가지 문화다양성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는 연말의 따뜻한 모임으로 기획된 자리였다. 공유가 이루어지는 북카페의 내·외부에는 참여자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이날의 자리를 한층 더 빛내어 주었다.

그간 사업을 담당해 온 완주문화재단 신인혜 팀원의 인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은 다과를 서로 교환하며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어색함을 친밀함으로 바꾸었다.

첫 번째 사례발표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소수다의 서재’>를 진행한 느낌보식탁x림보책방의 홍미진 대표가 맡았다. 2018년도부터 페미니즘을 주제로 자체적인 책 모임을 꾸려온 림보책방은 5년 동안 16권의 책을 낭독해 왔다. ‘소수다의 서재’ 사업을 통해 저자 초청 강연회를 꾸리는 등 활동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홍미진 대표는 책방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이 둘러앉게 하여 문화가 발생하게 만들기를 시사하였다. 책 모임에 함께 하는 이정은 참여자는 모임의 존재만으로도 지역에서 의미가 있기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남겼다.

두 번째 사례발표는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이었다. ‘그림사전’은 주민 작가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역과 주민의 삶을 담은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문화예술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경선 미디어 교육 교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유의 장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참여자로 함께 한 김재이 작가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니 신선하고 독창적이라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현준 작가는 생활 속 경험을 주로 그렸음을 밝히며 그림을 봐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현준 작가의 어머니 이순옥 씨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자녀가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산면에서 그림 활동을 하는 ‘물푸레’ 공동체 작가들이 직접 자신이 그린 ‘그림사전’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자신과 이웃의 삶을 녹아낸 그림 속에는 농촌 생활의 풍경, 가족과 나의 모습,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등이 다채롭게 담겨있었다.



세 번째 사례발표는 <문화다양성 활동가 양성과정 ‘점점이면’>으로 참여자들의 멘토로 활동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대표가 맡았다. ‘점점이면’ 프로그램은 크게 문화다양성 이론 특강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멘토링을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주민이 자율성에 기반한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접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점점이면’에 참여한 3인의 활동가도 소감을 밝혔다. 문지아 활동가는 자신의 고향인 캄보디아 문화를 공유하고자 참여했다며 문화다양성의 의미에 대해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은성 활동가는 한국 내의 이주민에 관심을 두었고 덕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내의 공동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치는 활동가는 문화다양성 활동이 더 많은 연결과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네 번째 사례발표는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단 ‘청소년 소수다’>에 관한 내용이었다. ‘청소년 소수다’ 프로그램 중 ‘완주 도보 탐험 프로젝트-견다 보면’은 운주면에 위치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완주 곳곳을 탐방하고, 이 과정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었다. 활동을 지도한 홍다인 미디어 교육 교사는 학업으로 인해 이주한 청소년들이 완주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잘 몰랐던 지역에 대해 알게 되고 경험하는 시간이 뜻깊었다며, 콘텐츠를 제작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완주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활동을 함께 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정성문 교사는 학교에서는 수동적이던 학생들이 바깥에서 더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사례발표는 <문화다양성 활동지원 '조건없음'>으로 '조건없음'에서 진행된 여러 활동이 소개되었다. 먼저 널리널리 흥흥의 장미경 대표가 지난 11월 개최한 완주장애인문화예술축제 '서로'에서 진행자 역할로 참여한 후기를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문화예술인을 동등한 예술가로서 대하고자 했음을 말하며,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게 움직이는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함께하는 경험 속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느꼈음을 전했다. 해당 축제에 참여하였던 유연주 작가의 어머니 김화순 씨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이 뜻깊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에이,알,티의 이성령 대표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한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주제의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소개했다. 그림책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을 자녀 및 주민들과 공유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의 방학 김지영 대표는 '당신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존에 '엄마의 방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던 활동의 소회를 밝히며 이제는 '엄마'라는 존재를 넘어서 '모두'라는 표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자 했다는 기획의도를 밝혔다. 최근의 활동 중 '소수다의 서재-살아갈 결심'과 '사람여행-발견클럽' 두 가지 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고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만들협동조합의 이선미 대표는 '우리 지역 지구가꾸미 원정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연과 환경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한 과정을 소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교육 종료 이후에도 자기 자신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토닥토닥의 서재화 예술인은 '슬픔에 발언권 주기'라는 주제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돌보는 각기 다른 방법에 대한 합동 공연을 제작했다. 기획자이자 예술인으로 주민들과 함께한 그는 공연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또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다섯 번째 사례발표는 <문화다양성 활동 사례 발굴 및 아카이브>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먼저 미디어공동체완두콩 협동조합의 강소는 기자가 5년 동안 문화다양성 활동을 취재하며 40여 건의 기사를 작성한 소회를 밝혔다. 사례 발굴을 위한 취재는 문화다양성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대상화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확인하면서, 작은 것부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문화 활동이 가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전스비주얼랩의 전별 대표는 문화다양성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 어렵기도 했지만, 여러 활동 현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잘 몰랐던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했다. 그는 결국 문화 다양성이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이번 작업이 여러 사람의 문화를 접하면서 인식을 넓혀나갈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정의했다.

여섯 번째 사례발표는 경희령 미디어 활동가가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약속 '다다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여섯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주민공동체, 단체, 기관 및 시설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다다당' 선언문은 완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다양으로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완주의 당연한 문화로 정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있었다.

하나로 정의할 수 없기에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활동은 각기 다르고, 그 의미 또한 다채로웠다.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하는 참여자들의 마음은 그림, 영상, 공연, 글,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이날의 자리를 통해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공존의 가치'는 마무리 되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간 쌓아온 수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으로 향해가는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공 존 의 가 치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공존의 가치’ 기록집

발행인 유희태

발행처 (재)완주문화재단

발행일 2023.12.

총괄 정철우

책임 송은정

기획 정책기획팀 이은경, 신인혜, 정지원

진행 정책기획팀 신인혜, 정지원

주소 (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홈페이지 www.wfac.or.kr



©완주문화재단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자와 (재)완주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으로 발간되었음.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
민
의
가
치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